



6 Focus
특별기획 세계대학 벤치마킹 리포트
베이징대 조신어학과 선임장 교수
 경제성장의 그늘에서 외면받던 베이징대
 인문학의 도약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현장취재를 통해 들어본다

동대신문

금주의어 남을 해칠 마음 없이 깨끗하고 더럽히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러한 악이 돌아온다. 바람을 거슬러서 먼지를 날리는 것처럼.
스다가파타 대품

www.dgupress.com

The Dongguk University Weekly Newspaper

제1484호 2009년 (불기 2553년) 11월 23일 월요일

Cover Story 양자가능반도체연구센터 도약 계기 마련

“반도체산업 새 방향 제시할 계획”

세계적 연구소 IMT·CNSI 분소 유치... 신개념 반도체 정보소자 개발도 가능



▲미국 일리노이대 물리학과 시바난탄 교수가 105만달러를 양자가능반도체연구센터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양자가능반도체연구센터(이하 반도체센터)가 NT, IT분야에서 세계적인 우수 연구기관으로 손꼽히는 러시아 과학원 산하의 Institute of Microelectronics Technology of Russian Academy of Science(이하 IMT), 미국 UCLA의 California Nano System Institute(이하 CNSI)의 분소(分所)를 분교에 유치해,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개념 반도체 정보소자를 개발할 가능성을 키우게 됐다.

두 연구 기관의 분소 설치에 교과부가 지원하는 2009년도 해외우수 연구기관 유치사업에 물리학과 강태원 교수(반도체센터 소장)가 제출한 'IMT와 CNSI 기관 유치를 통한 나노·정보 기술 연구 과제'의 선정으로 이뤄진 결과다. 이번 국가 사업 수주로 우리 대학은 6년간 40억원의 국고 지원을 받으며, IMT·CNSI로부터 분소 운영을 위해 6년간 각각 22만 달러, 67만 달러의 투자를 받을 계획이다. 또한 강 교수와 오랜 친분을 다져온 미국 일리노이대 물리학과 시바난탄 교수가 반도체센터 발전기금으로 105만 달러를 기부

해, 반도체 센터의 연구뿐만 아니라 물리학과 같은 기초 과학 학문의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 연구소 IMT, CNSI

IMT는 기존 반도체 소자의 한계를 극복(克服)할 나노재료인 그래핀(Graphene)을 최초 개발한 연구소로, 러시아 정부에서 연간 10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러시아 과학원 산하 NT분야의 최고 연구소이다. 그래핀은 실리콘보다 무려 100배나 빨리 전자를 이동시키고 휘거나 비틀어도 부서지지 않는 특성(特性)을 지니고 있다. 그래핀 상용화 기술이 고도화되면 휘거나 접을 수 있는 TV와 휴대전화 그리고 지금보다 수백 배나 빠른 반도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유비쿼터스 사회 구현(具現)에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

CNSI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부가 NT, IT, BT 분야 학제 간 융합(融合)연구를 위해 2억 달러를 투자해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전자를 이동시키는 반도체 소자의 통로를 2개로 늘리고 전자의 이동 방향을 조절하

는 '스핀 트로닉스 기술'을 개발했다. 스핀 트로닉스 기술이 결합된 반도체는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가 2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보통 반도체보다 기억 기능이 증가된다는 장점이 있다. 강 교수는 "IMT와 CNSI와의 상호 기술 교환을 통해 그래핀, 스핀 트로닉스 기술 그리고 우리의 기술이 결합된 신소재를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또 "신소재는 기존 반도체의 크기, 기능을 향상시켜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센터의 끊임없는 노력

두 연구 기관의 분소 유치와 관련해 강 교수는 "CNSI와 IMT측이 거액의 연구비를 투자하면서까지 기술과 의지를 해외 분소에 과감하게 투자해 주고 있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두 연구 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연구 활동 및 성과에 대한 신뢰를 쌓아 분소 유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반도체센터는 기능한국과학재단에서 주관하는 우수연구센터(SRC)에 선정되어 1999년부터 지난 2월까지 9년간 연간 10억씩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더불어 지난 5월 WCU 육성사업에서 반도체센터 산하의 강태원, 양우철 교수팀이 '나노막대를 이용한 정보디스플레이'에 관한 공동연구 기획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러한 반도체센터의 연구 성과 및 가능성은 세계 우수대학 출신의 뛰어난 연구원들이 우리대학을 선택하게 한 계기가 됐다. NASA 대신 반도체센터를 선택한 세계적인 공과대학 IITB출신 가나파피 교수, 인도 최고 공과대학으로 손꼽히는 안나 대학에서 큰 규모의 연구소를 운

영하던 쿠마르 교수 등이 반도체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또 매년 연구 주제에 따라 IMT, CNSI 연구소에서 각각 4명의 엔지니어 및 교수가 반도체 센터에 파견되며, 반도체센터의 연구원도 러시아의 IMT와 미국 CNSI에 각각 2명씩 파견된다. 강 교수는 "연구가 종료될 즈음에는 우수 연구 인력을 확보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연구소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다.

NT·IT분야 연구의 허브 목표

반도체센터의 목표는 우리대학을 NT, IT 분야에서 국제적인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반도체센터는 "러시아의 탄탄한 기초 과학과 미국의 선진 기술을 수용하여 새로운 반도체 정보소자를 개발하고, 우리대학이 이 신소재 연구 개발의 허브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일환(一環)으로 반도체센터는 3년 내에, 유치된 두 개의 기관을 포함한 전 세계 연구자들이 모이는 국제 컨소시엄을 설립하고, 반도체센터가 주축이 되어 NT, IT 분야와 관련된 연구소들을 모아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열 계획이다.

두 해의 우수 연구 기관의 분소 유치는 우리 대학의 과학 기초 학문이란 단계 성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해외 우수 연구소와의 상호 기술 교환으로 탄생할 신소재는 국내외 반도체 산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큰 수익창출도 기대된다. 우리대학의 반도체 센터가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NT, IT 연구 개발의 허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진혜 기자 leeshin@dgu.edu

보리수 계(戒)를 받고 참된 동국인 되길

법타스님
정각원장

생각해야 하고 행동해야 할 일을 하면 바른 법이 이 세상에 오래 머물게 될 것이고, 생각해서는 안 될 일과 행동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바른 법이 오래 머물 수 없다.(四分律 1)

목역산(木覓山)을 옮기듯 단장했던 나무들이 어느새 나목(裸木)되고 코끝을 시리는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금번 학기를 시작하면서 재학생 수요법회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눴는데 어느덧 달력 한 장만을 남겨 놓게 되었습니다. 학기 초 세워 둔 목표와 계획들이 값진 결실을 낼 수 있도록 정진하여 뜻대로 이루시길 바랍니다.

정각원에서는 종강과 함께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12월 2일, 재학생 여러분과 일반신도를 대상으로 참된 불자, 참된 동국인으로 거듭나는 뜻 깊은 수계법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계(戒)라 것은 악(惡)함을 없애고 선(善)함을 지향하는 삶의 기분이 되며, 나아가 성숙된 인격으로 생사윤회를 벗어나 해탈을 성취하는 지름길이 되며, 그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수계식에서 받을 부처님 계는, "진리를 깨달으신 부처님께 의지하고(歸依佛 兩足尊), 올바른 가르침과(歸依法 離欲尊), 그 가르침을 수행하는 승단에(歸依僧 衆中尊) 귀의하겠다"는 삼귀의계(三歸依戒)를 받아 불법승(佛法僧) 삼보(三寶)에 귀의합니다. 그리고 행동강령으로 첫째,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말고 자비심을 갖으며(不殺生), 둘째,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고 복과 덕을 짓고(不偷盜), 셋째, 그릇된 생각과 행동을 하지 말고 청정한 행을 지키며(不邪淫), 넷째,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고(不妄語), 다섯째, 술과 같은 중독성 물질을 멀리하고 맑은 지혜를 기르라(不飲酒)는 '다섯 가지 계(五戒)'를 받습니다.

계를 받아 참 불자, 참 동국인으로 거듭나며 자신을 항상 쟁겨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동국인이 된 인연으로 부처님 제자로서 자기 자신의 삶을 너그러하게 이끌어가는 주인공(主人公)이 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금주의 동대신문 Hot Issue

- 2 약학대학 유치지원단 발족
- 4 중앙기구 및 단과대 학생회 선거 특집
- 5 장태영 어린이 영화감독 인터뷰
- 6 세계대학 벤치마킹 리포트 - 베이징대학교
- 9 '배우수련' 안민수 석좌교수 인터뷰
- 12 중앙일보 기획탐사보도 최우수 - '매미 울음소리 들릴 무렵'

다음주 신문은 휴간합니다.

1485호는 12월 7일 자로 발행되오니 독자 여러분의 양해바랍니다.

지금 만족할 줄 알라

모든 고뇌를 벗어나고자 하는 자는
 지금 만족할 줄 알라.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비록 땅 위에
 누워 있어도 안락하니,
 이를 모르는 자는 천당에 있어도 편하지 않다.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부자라도 가난하고
 만족할 줄 아는 자는 가난하더라도 부자이다.

유교경

정각원 11월, 12월 정기법회 안내

구분	일시	장소	강좌주제	강사, 법사
재학생 수요법회	11.25(수) 17:30-19:00	정각원 법당	대학생을 위한 배낭여행 가이드	전유진(YJ 컨설팅)
교직원 정기법회	12.8(화) 17:00-18:00	정각원 법당	아람세계와 우리의 관계	정수일(무학마드 관수) 전 단국대 교수
정기법회	11.28(토) 10:00-12:00	대각전	불교와 현대정치	추미애(민주당 국회의원)
	12.5(토) 10:00-12:00	정각원 법당	생활법회	법산스님(불교대학 교수)
	12.12(토) 10:00-12:00	정각원 법당	과학으로 본 대승기신론	소광섭(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12.19(토) 10:00-12:00	정각원 법당	중국의 선	송묵스님(동원정사 주지)
	12.26(토) 10:00-12:00	대각전	인도초기의 수행	황순일(불교대학 교수)

□ 수계식 봉행안내

- 일 시: 2009년 12월 2일(수), 16시 ~ ※ 접수기간: '09.11.16 ~ 11.30(15일간)
- 장 소: 정각원 법당 - 대 상: 재학생, 교직원, 일반불자 등
- 접 수: 정각원 홈페이지, 유드림스 직접 신청 / 정각원 사무실 방문신청 가능
- 문 의: 정각원사무실(2260-3016~8)

동국대학교 정각원
 TEL. 02) 2260-3016~8
 http://jeonggak.dongguk.edu

동국대학교 정각원

약대 유치, 고양시 가세(加勢)

오영교 총장 “약대 유치 총력, 고양시와 상생 꾀할 것”

우리대학 약대 유치(誘致)에 고양시가 적극 지원하기로 해, 약대 유치에 힘을 실어 줄 전망이다.

지난 17일 우리대학은 고양시청 상황실에서 고양시와 고양시의회, 경기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약사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동국대 약대학 유치지원단’을 발족(發足)했다. 우리대학 약대 유치지원단의 공동위원장은 강현석 고양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김영선(일산 서구) 의원, 김태원(덕양 을) 의원, 손범규(덕양 갑) 의원, 배철호 고양시의회 의장, 진종철 경기도의회 의장, 고양시 약사회장 등이 추대(推戴)됐다.

‘동국대 약대 유치지원단’은 발족식에서 우리대학의 약대유치 지원을 결의하는 한편, 고양시의 약대유치 의지를 담은 공문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배철호 고양시의회 의장은 약대 유치지원단 발족취지문을 통해 “그 동안 군사시설에 따른 제약 및 수도 관정비계획법 등의 규제도 도시발전의 어려움을 겪어온 경기 북부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동국대에 반드시 약대를 우선배정해야 한다”고 강조(強調)했다.

현재 고양시는 정부의 신성장 동력사업인 ‘글로벌 헬스케어’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약대 유치를 위한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강현석 고양시장은 “고양시에는 대형병원(5개)이 밀집돼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고양시·동국대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고양메디칼러스터 구축은 대한민국 의료관광산업의 토대를 만들고, 신성장 동력산업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영교 총장은 “우리대학

이 약대학 유치를 해아만 종합 바이오대학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약대학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동국대와 고양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고양시는 ▲보건소 임상실습 협약 체결 ▲우수 학생 장학금 지급 ▲국책과제 유치 시 대응자금 제공 ▲제약기업 연구소 세제혜택 등의 행정적 지원 방안과 검토계획을 내놓는 등 우리대학의 약대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대학은 지난 7월 천문우전(前) 서울대 약대학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약대추진위원단을 발족하고, 경기 북부 내의 국립암센터 등을 포함한 지역병원과 협약을 완료했다.

이지연 기자
ly88918@dgu.edu

경주캠퍼스 100주년 기념관 준공식 성황리에 개최



경주캠퍼스 100주년 기념관(記念館) 준공식이 지난 20일 거행됐다. 경주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은 지하층, 지상5층 연면적 9,951㎡의 규모로 지어졌으며, 우리대학 경주캠퍼스 100년 역사와 항구적(恒久的) 가치가 건축적으로 표현돼 있다. 100주년 기념관은 경주캠퍼스 대학본관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5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을 갖추고 있다.

회전문대

패배는 약

○...고군분투(孤軍奮鬪), 그들은 그렇게 싸웠다 그들의 후손에도 불구하고 결승에서는 아쉽게 패했다 하지만, 패배는 병가상사(兵家常事) 승리를 만드는 약이 되는 법 내일은 Winner 동대축구부가 그라운드를 누빌 것이다

해킹은 보안의 어머니

○...전산망 해킹 사건 후 유드림스 보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대학 정보관리실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한 아이도 못 시접속을 막기 위해 로그아웃을 해야만 종료할 수 있다고.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해킹은 보안의 어머니!”

학생회 선거 내일(24일)부터

단과대 로비에 투표소... 3일간 진행

2010학년도 중앙기구 및 단과대 학생회 선거(選舉)가 내일(24일)부터 3일간 학내 곳곳에서 치러진다.

투표는 명진관 등 각 단과대 건물 로비에 비치된 총 10개 투표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개표(開票)는 오는 26일 8시 이후 본관 중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는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졸업준비위원회 △불교대 △문과대 △이과대 △법과대 △경영대 △공과대 △사범대 △예술대 후보자가 출마(出馬)했다. 이 중 법과대와 공과대는 경선(競選)으로, 나머지 단위는 모두 단일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치러진다. 사과대와 바이오시스템대는 입후보자가 없어 선거가 무산됐다. 또한 총대의원회는 후보가 나오지 않아 2010년에는

비상대책위원회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총학생회 선거에는 박인우(윤리문화4)-황주상(인도철학4) 조가 단독(單獨)출마했다. 총학생회 선거는 찬반투표로 치러지며 유효투표자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박인우-황주상 조의 당선(當選)이 확정된다. 한편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는 지난 23일부터 선거유세를 시작했다. ‘그대가 사랑할 수 있는 동국, Plan D’를 모토로 내세운 이번 선본은, 교육, 직접참여민주주의, 소통, 문화·복지, 복학생 사업 등 총 7가지 분야에 대해 공약(公約)을 내세워 선거운동을 실시했다. 공약으로는 △수강신청 대기시간 등록 서비스 △직접 참여 예산자치제 △학생회 간부 소환제 등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김미로 기자 miro@dgu.edu

김교각 스님, 1300년 만에 귀향(歸鄉)

경주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에 봉안(奉安)



지난 20일 경주캠퍼스 100주년 기념관 내, 신라의 왕자였던 김교각 지장왕 보살의 입상이 봉안(奉安)됐다. 이번 봉안은 성덕왕 19년(720년)에 중국으로 건너가 지장신앙의 꽃을 피웠던 김교각 지장왕 보살이 1,300년 만에 귀향(歸鄉)하는 것이다. 김교각 보살상은 중국 정부가 직접 조성한 목조입상으로 높이 2.5m의 규모다.

전라총보살 관계자는 “김교각 지장왕 보살상 봉안은 신라 왕자였던 김교각 스님이 떠나던 터지, 중국에서 고향(故鄉)인 경주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국 국가종교사무국 부국장, 중국불교협회장, 중화종교문화교류협회장 등 중국 불교

계 인사들과 국내 불교계, 정·관계, 재계, 신도 및 학생 등 약 1천 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이지연 기자 ly88918@dgu.edu

문예창작과 박성원 교수, 제 55회 현대문학상 수상



박성원 교수(문예창작학과)가 제 55회 현대문학상을 수상(受賞)한다. 박성원 교수는 문예창작과인 ‘작가세계 2009 가을 호’에 게재된 ‘얼룩’이라는 소설을 통해 현대문학상을 받게 됐다. 제 55회 현대문학상 시상식은 내년 3월 열릴 예정이다.

현대문학상은 작가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한국문학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대문학사에서 1955년에 제정한 문학상이다.

동국아트컴퍼니

MBC PlayBe와 MOU

우리대학 산학협력단과 (주)MBC PlayBe가 동국아트컴퍼니를 중심으로 어린이 체협교육 프로그램 개발(開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약을 지난 18일 본관 로터스를에서 체결(締結)했다.

현재 (주)MBC PlayBe는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 내 수영장부지에 ‘키자니아’라는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를 설립하고 있다.

이번 (주)MBC PlayBe와의 협약을 통해, 동국아트컴퍼니는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 운영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인력을 지원하게 된다.

파블리온은 직업체험 시설인 메인 파블리온 6개와 서브 파블리온 5개로 이뤄진다. 우리대학은 마술, 영화, 공연 등 직업체험시설인 11개 파블리온 운영으로 약 8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제공으로 약 7천 6백만원의 기술이전료를 받게 된다.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기간 :2009년 11월 1일 ~ 2009년 11월 15일

건학100주년발전기금

박현주(서울/교수, 5만원) 양한식(불교신도, 1만원) 이근성(불교신도, 5000원) 이석원(일산/직원, 10만원) 허천택(동문, 10만원)

단위기금

(주)건축사사무소시그에이(기업/재단, 100만원) (주)시스템디앤디(일반/기타, 200만원) (주)원양건축사사무소(기업/재단, 100만원)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우건축(기업/재단, 100만원) (주)트론엔지니어링건축사(기업/재단, 100만원) 김선욱(일반/기타, 100만원) 김순식(학부/교수, 10만원) 김명미(불교신도, 1만원) 김영수(학부/교수, 10만원) 김영제(일반/기타, 2만원) 김중성(동문, 1만원) 김중철(동문, 5000원) 김지은(대학원/교수, 10만원) 김진남(학부/교수, 100만원) 김풍환(일반/기타, 30만원) 김호성(서교/교수, 10만원) 도연연(일반/기타, 5만원) 동행라이온스클럽(동문, 200만원) 박미남(대학원/교육, 10만원) 방영오(불교신도, 1만원) 백광득(동문, 1만원) 손봉호(동문, 2만원) 송문식(동문, 2만원) 신성철(동문, 1만원) 애플사인(기업/재단, 100만원) 양경순(불교신도/기업/재단, 10만원) 에이엔엔디(일반/기타, 2만원) 이정운(동문, 2만원) 이현경(대학원/교육, 100만원) 재경진장(일반/기타, 5만원) 전우방(학부/교수, 10만원) 정용석(대학원/교육, 10만원) 조윤경(대학원/교육, 10만원) 하해용(학부/교수, 1만원) 한광술(불교신도/일반/기타, 5만원) 한민환(학부/교수, 1만원) 행정대학원(대학원/행정, 500만원) 현대건설(주)(기업/재단, 100만원) 홍석규(대학원/교육, 100만원) 황원기(대학원/교육, 10만원)

그림건축사사무소(주)(기업/재단, 100만원) 유석주(동문, 50만원) 윤주호(대학원/사회과학, 2만원) 이광석(동문, 1만원) 이기철(동문, 2만원) 이기수(일반/기타, 10만원) 최인희(불교신도, 18만원)

만원의 행복 기금

김민희(불교신도, 1만원) 박래훈(일반/기타, 1만원) 송경호(불교신도, 1만원) 송진원(불교신도, 1만원) 이재선(일반/기타, 1만원)

발전기금

구경도(일반/기타, 1만원) 김대선(스님, 10만원) 김봉교(동문, 2만원) 김영일(불교신도, 4만원) 김예림(동문, 1만원) 심동민(동문, 1만원) 윤길복(불교신도, 1만원) 이호원(동문, 3만원)

조경덕(일반/기타, 2만원)

의료원(일산)

김광해(불교신도, 100만원)

일산불교병원발전기금

김위동(불교신도, 3만원) 김형준(동문, 1만원) 온상오(동문, 2만원) 이순욱(일반/기타, 10만원) 최인희(불교신도, 18만원)

장학기금

(주)대성강업(기업/재단, 100만원) (주)세원장사(기업/재단, 100만원) (주)신한철강산업(기업/재단, 100만원) (주)하이파킹(기업/재단, 800만원) 강영진(동문, 2만원) 강지연(일반/기타, 2만원) 강창호(대학원/교육, 29만2000원) 고철환(대학원/기타, 2만원) 광동업(동문, 4만원) 구한모(동문, 1만원) 국민은행(기업/재단, 300만원) 국민은행 신내동지점(기업/재단, 100만원) 권순민(불교/기타, 1만원) 권우용(불교/기타, 2만원) 권중자(불교/기타, 1만원) 권혁복(동문, 10만원) 김경영(동문, 1만원) 김계인(서울/교수, 5만원) 김규태(대학원/교육, 5만원) 김금용(동문, 2만원) 김남영(동문, 5만원) 김덕년(스님, 1만원) 김미숙(불교/기타, 1만원) 김상태(동문, 3만원) 김선유(불교/기타, 1만원) 김성수(동문, 3만원) 김성준(일반/기타, 2000원) 김세윤(동문, 1만원) 김용래(동문, 2만원) 김용원(동문, 1만원) 이상복(동문, 3만원) 이상봉(동문, 4만원) 이상보(동문, 5만원) 이상원(동문, 1만원) 이상익(일반/기타, 3만원) 이선경(일반/기타, 2만원) 이원규(동문, 2만원) 이지희(동문, 3만원) 이해중(불교/기타, 1만원) 이혁(불교/기타, 2만원) 이혜선(동문, 2만

원) 김정근(동문, 3만원) 김경웅(동문, 2만원) 김정은(동문, 2만원) 김경호(일반/기타, 1만원) 김종식(동문, 3만원) 김주익(동문, 1만원) 김진용(일반/기타, 3000원) 김현선(동문, 1만원) 김혜숙(불교/기타, 2만원) 김호산(동문, 5만원) 김효숙(불교/기타, 2만원) 김휘웅(일반/기타, 2000원) 남현석(동문, 3만원) 류경자(불교/기타, 1만원) 모종배(동문, 10만원) 박동태(일반/기타, 1만원) 박성훈(불교/기타, 1만원) 박순자(불교/기타, 1만원) 박연이(불교/기타, 5만원) 박정훈(불교/기타, 1만원) 박창근(일반/기타, 3만원) 박태환(동문, 1만원) 박해경(동문, 2만원) 배나영(동문, 10만원) 서동일(동문, 1만원) 서필기(기업/재단, 7만원) 설재호(동문, 300만원) 손상국(불교/기타, 1만원) 손영수(일반/기타, 5000원) 송석원(동문, 3만원) 송유준(일반/기타, 2만원) 송효영(동문, 5만원) 신현준(동문, 100만원) 신유정(불교/기타, 1만원) 신인호(동문, 2만원) 심경용(동문, 5만원) 심규홍(일반/기타, 1만원) 엄종호(동문, 3만원) 여익구(동문, 20만원) 오미경(동문, 10만원) 우학수(스님, 50만원) 유창록(동문, 4만원) 윤상진(동문, 10만원) 윤주호(대학원/사회과학, 5만원) 윤준호(동문, 2만원) 이경성(불교/기타, 2만원) 이덕순(일반/기타, 2만원) 이두이(불교/기타, 5만원) 이라욱(동문, 1만원) 이상복(동문, 3만원) 이상봉(동문, 4만원) 이상보(동문, 5만원) 이상원(동문, 1만원) 이상익(일반/기타, 3만원) 이선경(일반/기타, 2만원) 이원규(동문, 2만원) 이지희(동문, 3만원) 이해중(불교/기타, 1만원) 이혁(불교/기타, 2만원) 이혜선(동문, 2만

원) 이혜주(일반/기타, 1만원) 임금옥(불교/기타, 5만원) 임영혜(불교/기타, 2만원) 장보영(동문, 5000원) 장원영(동문, 2만원) 장중수(동문, 5만원) 장진(동문, 5만원) 전우택(일반/기타, 1만원) 전포성(일반/기타, 2만원) 전형준(동문, 3만원) 정승용(동문, 3만원) 정우경(동문, 1만원) 정창수(불교/기타, 1만원) 정학수(동문, 2만원) 정환섭(동문, 2만원) 조당호(동문, 3만원) 조승이(스님, 5000원) 조아라(일반/기타, 5000원) 조진권(동문, 1만원) 조태수(동문, 1만원) 조희준(일반/기타, 3000원) 지승림(불교/기타, 2만원) 채윤미(일반/기타, 1만원) 최덕규(동문, 3만원) 최문정(일반/기타, 1만원) 최보영(동문, 1만원) 최아영(동문, 1만원) 최우혁(일반/기타, 1만원) 최창영(동문, 3만원) 최현숙(불교/기타, 2만원) 단성스님(스님, 1만원) 함한진(동문, 3만원) 허진(불교/기타, 2만원) 허진석(동문, 5만원) 홍성권(동문, 1000만원) 황상복(일반/기타, 2만원) GS홈쇼핑(기업/재단, 24만1750원)

특정목적기금

(주)대신산업(기업/재단, 1만원) 경주정각원(사찰, 94만원) 권점숙(대학원/불교, 10만원) 권희경(경주병원/직원, 3000원) 김덕표(학부/교수, 1만원) 김동석(학부/교수, 1만원) 김성원(동문, 5000원) 김세희(경주병원/직원, 3000원) 김양순(불교신도, 3000원) 김영일(경주병원/직원, 1만원) 김은영(경주병원/직원, 3000원) 김태린(일반/기타, 5000원) 김현경(경주병원/직원, 3000원) 김원진(동문, 4만원) 남정례(일반/기타, 50만원) 류창원(동문, 1만

원) 무구스님(스님, 5만원) 박계훈(학부/교수, 1만원) 박광영(동문, 1만원) 박봉환(동문, 1만원) 박철수(동문, 1만원) 백상(기업/재단, 10만원) 백용운(서울/교수, 35만원) 보글락F.S(주)(기업/재단, 5만원) 산정(기업/재단, 10만원) 서남순(경주병원/직원, 1만원) 서미혜(경주병원/직원, 1만원) 설향미(동문, 1만원) 손민준(일반/기타, 5000원) 신명식(일반/기타, 100만원) 신진(경주병원/기타, 3000원) 심경열(불교신도, 3000원) 양재연(경주병원/직원, 3000원) 윤경식(일반/기타, 1만원) 윤혜숙(불교신도, 100만원) 이경미(경주병원/직원, 3000원) 이나현(경주병원/직원, 5000원) 이봉자(불교신도, 100만원) 이수야(일반/기타, 1만원) 이수현(경주병원/직원, 3000원) 이순호(일반/기타, 5000원) 이시형(학부/교수, 2만원) 이양희(경주병원/직원, 5000원) 이원학(일반/기타, 2만원) 이정우(경주병원/직원, 1만원) 이지영(경주병원/직원, 3000원) 이태영(경주병원/직원, 1만원) 이형경(경주병원/직원, 3만원) 임성진(경주병원/직원, 5000원) 장미란(경주병원/직원, 1만원) 전순남(일반/기타, 20만원) 정경원(사찰, 489만8000원) 정경운(경주병원/직원, 3000원) 정은재(동문, 10만원) 정재용(경주병원/직원, 3000원) 정재우(동문, 10만원) 정한관(불교신도, 2만원) 조경인(일반/기타, 5만원) 하경민(경주/교수, 10만원) 한도연(일반/기타, 5000원) 한소연(일반/기타, 5000원)

반도체센터, 미·러 우수 연구기관 분소 유치

IMT·CNSI 각각 6년간 22만 달러, 67만 달러 투자, NT·IT 기술 교류도

양자기능반도체연구센터(이하 반도체센터)가 미국·러시아의 우수 연구기관의 분소(分所)를 유치(誘致)하고 본격적인 공동연구를 시작한다.

우리대학과 교육과학기술부, 러시아 과학원 산하의 IMT(Institute of Microelectronics Technology)와 미국의 CNSI(California Nano system Institute)는 지난 10일 각각 양해각서(MOU)를 체결(締結)하고 각 연구기관의 분소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우리대학 오영

교 총장과 반도체센터 강태원 소장, 교육과학기술부 이은우 국제협력국장, 한국연구재단 최광학 국제화정책기획단장, 러시아 IMT 툴린 소장, UCLA CNSI의 바이스 소장 등이 참석(參席)했다.

IMT의 국내 분소 설치는 나노(NT) 및 정보통신 기술(IT)의 융합 기술 분야 공동연구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도 해외 우수 연구기관 유치사업에 강태원 교수의 나노-정보 기술연구가 선정(選定)된 결과다.

세계적으로 유명 연구기관인 IM

T와 CNSI는 우리대학 분소 운영에 각각 6년간 22만 달러와 67만 달러 투자할 계획이다.

반도체센터는 두 연구기관이 보유한 NT-IT 분야 선도-원천기술을 활용, 신개념 반도체 정보소자를 개발(開發)하고, 개발기술은 산업체에 적극 이전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과 공동연구를 통하여 서로 상호간에 축적된 기술을 교환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강태원 교수는 “반도체 분야에 서 러시아의 기초과학과 미국의 응

용과학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며 “이들의 기술을 받아들여 우리 연구 센터가 반도체 분야의 중심허브 역할을 하는 연구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센터는 지난 99년부터 9년간 정부로부터 우수연구센터(SRC)로 지정돼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지난해부터는 SRC 후속사업인 도약과제를 수행하며 500여 편의 SCI 논문 발표, 30여 편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연구센터 중 하나이다.

오세진 기자 viva5@dgu.edu

국가품질상 교육부문 대통령표창

고객만족경영대상은 2년 연속 최우수상

우리대학이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표준협회에서 주관하는 국가품질상 교육부문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受賞)한다. 국가품질상은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우수기업,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우리대학은 고객, 효율, 성과 중심의 혁신(革新)경영을 도입해, 새로운 대학경영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이 수상에 크게 반영됐다.

또한 우리대학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주관하는 고객만족경영대상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는다. 고객만족경영대상은 고객만족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선도적인 CS경영활동을 펼친 기관에게 수여한다. 우리대학은 대학 최초로 CS경영팀을 신설해 대학 CS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 받았다.

전국대학축구대회 준우승(準優勝)

고려대와 결승, 분전(奮戰)했지만 석패

우리대학 축구부가 제 64회 전국대학축구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고려대에 2대 5로 석패(惜敗)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결승전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안산 와 스타디움에서 열렸다. 전반전을 2대 3으로 마무리한 우리 선수들은 후반전에 분전(奮戰)했지만 안타깝게 2대

5로 패했다. 김종필 감독은 “아쉽게 졌지만 열심히 해준 선수들에게 고맙다”며 “다음 경기에서는 분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대학축구선수권대회에서 우리대학 축구부 변영민 선수는 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수시 2차, 역대 최고 38.23 대 1

영문학부 69.38 대 1 최고, 오는 13일 발표

우리대학 2010학년도 수시 2차 모집 최종 경쟁률이 38.23대 1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2010학년도 수시 2차 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309명 모집에 1만 1813명이 지원해 38.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영어영문학부로 8명 모

집에 557명이 지원해 69.6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사회·언론정보학부 사회학 전공은 67.67대 1, 경제통상학부 경제학전공은 58.1대 1, 경영학부는 57.13대 1, 경찰행정학과는 30.20대 1로 집계됐다. 한편 수시 2차 합격자 발표는 오는 12월 13일이다.

신종플루 정점 통과... 확진 환자 급감

확진환자 76명 중 68명 완치(完治)

신종플루 확진환자 및 추정 환자가 급감(急減)함에 따라, 신종플루 정점은 통과(通過)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학생서비스팀이 집계한 신종플루

확진환자는 모두 76명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플루 확진환자 76명 중 68명은 완치(完治)된 상태이며, 8명은 가택 격리(隔離)돼 치료 중이다.

동약로에서

이슬비 기자
beeya@dgu.edu



Do Dream !

시인, 법률 관련 블로그, 다큐멘터리 제작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2010학년도 수시 1차에서 자기추천전형을 통해 최종합격(合格)한 학생들이다. 학생들의 합격을 결정지는 주요 요인은 바로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경험과 잠재력(潛在力)의 실현 가능성이었다. 자기추천전형을 국문학과에 합격한 노지연 양은 ‘시인에게 신인상 공모전’에 시인으로 등단한 이력(履歷)을 지니고 있다. 노지연 양은 “문학적 역량을 키우는 데 주력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자기추천전형에 지원하게 됐다”며 “특성화된 전형인 만큼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건우 군은 법률 관련 블로그를 운영한 햇수만 2년이다. 그는 블로그 운영을 통해 시사문제에 대한 법적 해석은 물론 판례 분석 등의 활동을 해 왔다. 하건우 군은 “좋아하는 활동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재능을 높이 평가하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

다”라며 합격 소감을 전했다.

최근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학생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평가 방법이 도입되고 있다. 실제로 2011학년도 수시부터는 단과대별 인제상에 걸맞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두드림(Do Dream)전형이 신설된다. 입학처의 한 관계자는 “두드림 전형은 단과대별로 전공수학능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바시대의 경우 실형을 통한 보고서 작성, 법대의 경우 법률 사례에 대한 토론의 장 마련 등 전공별 특성을 살려 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입학사정관제는 학생은 자신의 잠재력과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이면서, 대학은 재능 있는 인재 발굴할 수 있는 기회다. 김종숙 입학사정관은 “입학사정관제로 ‘우수한 인재’의 정의가 폭넓어져, 다양한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학과 학생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로 거듭나, 대학이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불교진흥원 대원불교문화상 제정

2011년까지 매년 1억씩 기부 약속

우리대학과 대한불교진흥원(이하 불교진흥원)이 대원불교문화상 제정(制定)하고, 대원불교문화기금으로 5억 원의 기금(基金) 적립한다. 대원장학기금 변경 협약을 지난 18일 체결했다. 불교진흥원은 지난 2007년 7월에 대원장학기금으로 매년 1억 원씩, 총 5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約定)했다. 올해까지 2억 원을 기부한 불교진흥원은 지난 10월 남은 3억 원을 장학금 대신 불교문화기금으로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협약으로 인해 대원불교문화기금으로 변경된 이 기금은 동국인들의 불교 학술·문화 컨텐츠 창작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불교진흥원은 2010년부터 매년 불교 관련 학술 및 창작분야 공모 또는 과제 발주 등 다양한 사업(事業)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문화상의 제정과 함께 불교진흥원은 매년 3천 5백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위해 불교문화기금으로 매년 1억 원씩 우리대학에 기부할 예정이다.

Global IT 자격증 ICDL 특별강좌 개설 및 실시

신입사원 선발시 ICDL 취득자 우대...ICDL 취득 열풍

신입사원 선발시 ICDL 취득자를 우대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대학 평생교육원이 ICDL 특별강좌를 개설(開設)해 운영한다.

ICDL은 전 세계 148개국에서 42개 언어로 시행돼 9백만 명의 자격취득자를 자랑하는 정보지식 및 컴퓨터 활용능력을 평가 측정하는 국제공인 자격증이다. 우리대학 교양교육원 관계자는 “ICDL은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고 있어 신뢰도(信賴度)를

쌓아 가고 있다”며 “우리학교도 기존 스펙을 위한 IT자격증으로 MOS MASTER를 권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MOS를 인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대학은 ICDL 공인시험 센터로 지정되어 전산원에서 상시적으로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로 시험응시가 가능하고 학생경력개발원 여대생커리어센터 알파걸 인증제에서 컴퓨터능력 필수 조건으로 활용(活用)되고 있다.



오늘은 참
따뜻한 날입니다

낮선 땅, 낯선 거리 그리고 갑자기 쏟아지는 비... 하지만 먼 나라에서 건너와 엑세서리를 팔던 젊은 커플에게 오늘은 참 맑은 날입니다.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차양을 내려준 꽃집 아저씨의 따뜻한 마음을 만났거든요.

차가운 비가 맺어준 인연으로 이렇게 우리는 가까운 이웃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열면 따뜻한 세상이 시작됩니다



제 42대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 인터뷰

“학생들과 소통으로 함께 하는 총학생회 건설 목표”

단독 출마한 박인우-황주상 후보조, ‘Plan D’ 슬로건 걸고 등록금 동결 등 공약 제시



“‘Plan D’ 공약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나아가는 총학을 만들겠습니다!”

42대 총학생회에 출마(出馬)하는 박인우(총학생회장 후보·윤리문화4)·황주상(부총학생회장 후보·인도철학4) 군은 힘차게 외쳤다. 선거가 오직 하루가 남은 상황이라 초조하고 긴장되는 상황이지만 두 후보자는 시원스럽고 편안한 웃음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학생권리 요구할 수 있는 학교 만들려

박인우 총학생회장 후보(이하 총학 후보)는 “문과대 학생회장을 하면서, 학생의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었다”고 출마 계기를 밝혔다. 황주상 부총학생회장 후보(이하 부총학 후보)는 “불교대 학생회장을 지내면서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를 다니길 바랐다”며 출마 동기를 설명했다. 박인우 후보는 가장 먼저 등록금 동결(凍結)에 대해 “총학 후보는 지난해 정규학기 등록금이 동결된 반면 계절학기 등록금은 많이 인상되었다”며 “올해는 신학기 등록금·계절학기 등록금이 모두 동결될 수 있도록 당선과 동시에 학교에 면담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약으로 제시한 학점(學點) 세이브 제도는 벤치마킹 공모전에서 우승한 후, 학교 측이 메일을 보내 여론 조사를 했음에도 실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후보는 이러한 학점 세이브의 문제에 대해서도 학교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학생회 회계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총학생회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학생회 임원들

이 학생회비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직접참여 예산자치제는 총학생회 예산 중 10%로 각 단과대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으로, 이들은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 사업을 정할지, 또 학생회비 납부(納付)율이 줄어드는 만큼 예산을 얼마나 배분할지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박인우 후보는 학내 ATM 기기 24시간 수수료 면제(免除) 공약을 제시했다. 박군은 “많은 학생들이 학생증을 만들면서 신한은행 계좌를 만든다”며 “신한은행에서 학교에 발전기금을 내고 있지만, 학생들에게는 직접 이익이 없는 상황”이라고 이 공약을 제시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부산대와 부산은행이 학내 ATM 기기 24시간 수수료 면제를 실시한 이후로, 각 학교 학생회마다 이 공약을 시행하려는 게 전국적인 추세라며 꼭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교수연구평가 보다 더 강화돼야”

한편 최근 몇 년 동안 대외적으로 추락한 대학의 위상에 대해 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교수부문의 연구 실적(實績)이 많이 낮았던 것에 대해 부총학생회장 후보 황주상 군은 “기득권이 보장된 교수들이 학교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연구업적을 엄격하게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총학 후보 역시 지금의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강의평가보다 심도 있게 평가하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의 입장에서 공간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공간조정위원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간조정위원회를 통해 강의실

인원수를 줄이고, 학교 내의 남은 공간을 강의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 선거참여가 학생회 강화할 것

지난 41대 총학은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했지만, 사업진행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져 후반기에는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해 동안 총학생회 운영위원으로서 노력이 부족했다며, “한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그 외의 사업들도 잘 병행(並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생들도 비판만 하지 말고, 스스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참여를 독려(督勵)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두 후보자는 학생들에게 당부의 한마디를 했다. 총학 후보는 “학우들이 학교를 사랑한다면 동국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학생활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많이 경험하라고 충고하며, 동국대에서 겪은 경험으로 다양한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돕는 조력(助力)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제 총학생회 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단 하루. 우리대학 1만 3천 학생들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가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학생들의 권익의 보호를 위해 나설 총학생회를 건설하는 선거에서, 학생들은 그들의 대표가 어떤 인물인지 파악(把握)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얼마만큼 열성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지, 인터뷰에서 나왔듯이 학생 스스로가 따져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김미로 기자
miro@dgu.edu

선거 D-1, 동국인의 선택은?

〈편집자주〉
중앙기구 및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가 이제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대부분이 단선으로 이뤄져 이전에 있었던 선거의 긴장감이 다소 떨어진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권익의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학생회만큼 여러모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동대신문에서는 총학생회 후보자와 각 단과대학 학생회 후보자들을 만나 그들의 주요공약과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과대학
정 박천순(반도체3)·부 최수호(물리2)
“학생들의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전공을 살린 인턴십 등을 이과대 게시판에 올려 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이것이 학생들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좋아하는 시험기간 간식 행사 등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작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즐거운 학생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과대학
[기호 1번] 정 배훈옥(법2)·부 이원혁(법2)
“법대 아고라라는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기구를 만드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 제도를 통해 최소 120명의 학우들을 직접 만나 듣고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대 학우들을 앞에서 이끄는 학생회가 되기보다 학생들의 가장 아래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듣는 학생회가 될 것입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정후보자와 학생회의 경험에 있는 부후보자의 조화를 통해 학생들의 신뢰를 받는 더 나은 법대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과대학
[기호 1번] 정 정다운(산시공3)·부 이기성(건축3)
“핵심공약으로 사람의 집짓기 봉사활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과대에 소속되어 있는 전공들을 모두 살린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긴 힘들겠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해 공과대 졸업 시 하나의 스펙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공과대 문제에 대한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전하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4000여명의 행복한 공과대 정산대를 만들겠습니다”

불교대학
정 이상언(불교2)
“저는 스님, 학생 등 모든 범우들이 하나 되기 위한 불교대학을 만들 것이며 이를 위해 학생회실 상시 개방, 운동회 개최 등을 할 것입니다. 또한 후배가 선배를 칭찬하는 ‘은혜 깊은 불대생’의 행사를 통해 선배와 후배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범우들과 더 가까워진 학생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생회실에서 택배를 대신 받아주고, 범우들이 차를 즐기고 편히 쉬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주 5명 정도의 범우들을 만나 정책에 대한 의견과 조언을 받을 것입니다”

경영대학
정 김희성(경영3)·부 백주연(경영3)
“저희 공약의 핵심은 ‘우리는 하나, 함께하는 경영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3개의 단과(경영, 경영정보, 회계)에 속해 있는 모든 학우들이 경영대학이라는 하나의 터울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어 함께할 수 있는 COOL 경영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COOL 경영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2번] 정 황현주(법2)·부 곽호남(법1)
“하나 되는 법대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5개의 학회로 이루어져 있는 법대를 하나로 뭉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학회에는 비품 등을 제공하고, 비학회 사람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만남의 자리를 제공하여 학회와 비학회를 아울러 법대를 하나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스터디를 지원해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모의 도의를 열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1년간의 학생회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공약을 만들었고, 그것을 지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기호 2번] 정 강신영(전자공3)·부 김동규(컴공2)
“공과대 정산대의 위치 특성상 현금인출기가 멀리 위치해있습니다. 매년 현금 인출기까지 가는 것도 힘이 듭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원흥관 4층에 현금인출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저는 내세운 공약은 전부 다 지킬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사과문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랑을 나누는 모금함 설치를 통해 학교 대내외적으로 우리 대학 공과대를 알리고 싶습니다”

문과대학
정 노호선(철학3)·부 김갑현(사학3)
“저희는 문과대를 위해서 운동기구 대여, 학생회실 개방 등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배드민턴 체, 공등을 학생회실에 구비하고, 학생회실 공간을 할애해 학생들이 다과 등을 즐기도록 해 실질적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기동안 유지할 문과대 전용 핸드폰을 만들어 학생회 정책에 학우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년의 날, 페스티벌 데이 등에 학생회가 주관하는 행사를 열어 학생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사범대학
정 이규량(국교3)·부 김무성(교육2)
“현재 사범대 교사 양성 특별과정 때문에 사범대 학생들의 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질에 있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의 임기 동안 이러한 제도도 맞서 싸워 이기는 데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저의 임기 동안 등록금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같은 금액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포부를 말씀드리자면 사범대 학우들의 교사라는 소중한 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기호 3번] 정 전민혁(법4)·부 김영정(법4)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약만을 만들었습니다. 동문 선배들의 협찬을 받아 사물함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고, 학생회실을 ‘법대인의 영토’라는 개념된 휴게 편의시설로 만들 생각입니다. 또한 학교의 공간 활용 때문에 사라진 여학생휴게실을 복원하겠습니다. 같은 재료가 주방장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듯이 저희들의 짧지 않은 사회생활을 통해 키워진 지혜를 법대인과 공유할 것입니다”

예술대학
정 김은혜(불미3)·부 김선욱(영화2)
“투명한 통장 공개라는 핵심 공약을 통해서 예술대의 사업 내용을 상세히 밝히는 것이 저희 첫 번째 목표입니다. 또한 그동안 단절되어 있던 예술대의 각 과들을 화합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체육대회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대표들과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류하는 자리를 만들어 과 간의 교류를 활발히 일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 드라마·영화 제작에 나이는 불문”

62세의 장태령 동문, 감동을 선사할 가족 영화 ‘마마 앤드 파파’ 제작



▲ 영화 ‘마마 앤드 파파’를 촬영중인 장태령 동문(왼쪽) 장태령 동문은 훗날 어린이들을 위한 매진했던 영화인으로 각인되고 싶다고 말했다(오른쪽)

어린 시절 누구나 한번쯤 ‘매직 키드 마수리’ ‘요정 컴미’ 등 어린이의 시각에 맞춰 유쾌(愉快)하면서도 교훈이 담긴 어린이 드라마에 빠져본 적이 있을 것이다.

6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의 동심으로 돌아가 아이들을 위한 콘텐츠 제작에 주력하는 고령(高齡)의 영화(映畵)감독이 있다.

그는 바로 우리 대학 문화예술대학원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한 장태령 감독이다. 그는 37년 동안 어린이 드라마 ‘캡스 보이’, 뮤지컬 ‘로빈 훗과 나무요정들’ 등을 연출하는 등 어린이들을 위한 드라마 영화, 뮤지컬 어린이들을 위한 작품들을 만드는 데 공을 쏟고 있다.

장태령 감독은 1960년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가족 영화 ‘저 하늘에도 슬픔이’에 큰 영향을

받아 어린이 영화에 매진(邁進)하게 됐다고 한다.

최근 그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가족 영화를 제작(制作)하고 있다. 지난 5월 그는 가족 영화 ‘마마 앤드 파파’의 제작을 알리는 제작 발표회를 갖고 본격적인 촬영(撮影)을 시작했다. 장태령 감독은 “마마 앤드 파파는 경기도 어느 시골 분교에 재학 중인 한 소녀의 일기를 토대로 영화화한 것으로, 가난한 삶에도 따뜻하게 건너 나가는 세 자매와 이들을 둘러싼 어른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다뤘다”며 모든 연령대 층에게 눈물과 감동을 선사할 아련한 가족영화임을 강조했다.

장태령 감독은 ‘마마 앤드 파파’ 제작과정에서 각본(脚本)뿐만 아니라 연출, 감독까지 영화 제작에 있어 대부분의 역할을 맡았다. 이번 영화

를 통해 시나리오 제작에 처음 도전한 장태령 감독은 “1년 이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씨름했다. 동국대 문예창작학과 동문인 고훈물 드라마 작가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마마 앤드 파파 탄생하기 까지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며 도움을 준 동문(同門)에 대한 감사함을 표시했다. 더불어 영화 ‘마마 앤드 파파’를 제작하는데 있어 우리 대학 문화예술대학원 영화 연출 과정에서 배운 지식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의 자본 투자(投資)로 이뤄진 해외 블록버스터 영화 및 국내 영화가 극장가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현재, 어린이 영화라는 소수 장르를 제작하고 상영(上映)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이에 대비해 ‘마마 앤드 파파’는 디지털 영화 상영이 가능한 곳 어디에서나 상영

될 수 있는 HD 시스템으로 제작되었다. 마마 앤드 파파는 내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맞춰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장태령 감독은 “돈을 벌기 위해 영화를 한다면 성공할 수 없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장르를 추구하다 보면 그에 맞는 성공(成功)이 따를거라 생각한다”며 지속적으로 어린이를 위한 콘텐츠 제작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어린이 영화를 만들기 62세의 나이에도 어린이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노력한다는 장태령 감독. 그는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에 매진한 영화인 장태령으로 사람들의 기억속에 각인(刻印)되고 싶다는 말로 인터뷰를 끝마쳤다. 그의 꿈이 ‘마마 앤드 파파’를 통해 날개를 달기 기대 본다.

백선아 기자 amy@dgu.edu

매체비평

루저 사태, 제 2의 개똥녀 사태인가?

공감의 반대말은 반감이 아니다. 영화 ‘트루먼 쇼’에서 트루먼의 거짓 인생에 열광하는 사람들과 트루먼 쇼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들은 모두 ‘시청자(視聽者)’다.

시청자에게 있어 혼란은 트루먼 쇼가 옳으나 그르거나 아니라 트루먼을 보여주는 화면이 잠시 끊어질 때 발생한다. 문제는 찬성과 반대가 아닌 소통(疏通)과 단절에 있다. 트루먼 쇼를 시청하는 한 우리는 모두 트루먼에게 가짜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게임의 공범자가 된다.

하지만 트루먼 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시청자에게는 보는 것 이상의 행위가 허락되지 않는다. 시청자는 오직 소비함으로써 트루먼 쇼라는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필자가 최근 ‘루저(loser)의 난’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최초로 접한 것은 ‘179.9cm도 루저다!’라는 기발한 문구를 내세운 한 온라인 쇼핑몰의 깔창 광고를 통해서였다.

오라프로그래프에 출연한 여대생이 발언한지 채 하루가 되지 않아 등장한 이 광고는 지금 유희를 넘어 사회현상으로 파급(波及)되고 있는 루저 발언(發言)의 위치와 속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이를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집단적 반발로 해석하고 있지만 사실 이는 외모로 대표되는 주류적 가치에 대한 갈망과 거기에 편입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의 표현에 가깝다. 외모에 대한 놀림과 비하는 유머의 코드로 오랫동안 유통되어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다.

오히려 이번 루저 발언의 파괴력은 ‘루저’의 단순명쾌한 위치지정에 있다. 친절하게도 180cm 이하로 수치화 시켜준 ‘외모’로 대표되는 주류적 가치의 기준은 시청자의 위치를 관람자에서 놀림의 대상으로 역전시킨다. 주류적 가치에 편입(編入)되지 못한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한 루저 발언은 ‘장기하와 얼굴들’과 같은 루저를 위모하는 루저 문화의 대척점에 있을 뿐 본질은 동일하다. 우리는 이미 공감과 반감의 두 얼굴을 가지고 루저 문화의 게임 속에서 놀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놀고’ 있다는 사실이다. 루저 발언에 관련한 논란(論難)은 그 논란까지도 일종의 재밌는 놀이과정으로 소비된다. 논란이 일어날수록 축제에 활기는 더해지고 놀이는 즐거워진다.

하지만 놀이가 즐거우면 즐거울수록 죄의식에서는 눈이 멀어진다. 그들(혹은 그들로 대표되는 우리)은 쉽게 집중하고 쉽게 질리며 적어도 놀이 안에서는 타율적인 자율적인 실제의 윤리나 책임들은 쉽게 무너뜨린다. 스스로의 행위에 대한 ‘실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양한 뉴스와 패러디물을 보며 스스로를 축제의 행위자인 양 착각(錯覺)하지만 대다수 네티즌은 결국 관객의 위치에 머문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끝나면 채널을 돌리면 그만이다. 그런 의미에서 ‘트루먼 쇼’의 엔딩에서 트루먼 쇼의 팬이었던 두 경비병이 주고받는 마지막 대사는 실로 의미심장하다.

“끝났네. 이제 뭘 보지?”
“다른 데 뭐하나 틀어봐.”



송경원
대중문화평론가
영성대학원 영화영상학과 석사 수료



▲ 5개 도시 연주자들이 광대역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협주하는 공연 모습.

최첨단 멀티미디어 음악 세계로의 초대

‘ResoNations’, ‘보는 소리 듣는 영상’ 이혜랑 예술극장서 멋진 하모니 선사

우리대학 멀티미디어 학과가 학내 구성원을 위한 멀티미디어 음악의 향연(饗宴)을 이혜랑 예술극장에서 펼친다. 지난 21일 열린 ‘ResoNations’ 공연과 오는 25일에 이뤄질 ‘보는 소리 듣는 영상’이 이에 대한 일환(一環)이다.

‘ResoNations’ 공연은 지리적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음악인들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

해 함께 음악을 연주하는 ‘텔레매틱’ 공연(公演)으로, 미국의 뉴욕과 샌디에고, 캐나다의 밴프,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서울 5개 도시의 연주자들이 참여했다. 광대역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서로의 공연 영상과 음향을 실시간으로 보고 들으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냈다. 이번 공연에서 멀티미디어학과 김준 교수가 작곡한 ‘Green-Colored

Harmony’도 연주(演奏) 됐다.

오는 25일에는 멀티미디어학과에서 주관하는 ‘보는 소리 듣는 영상’ 멀티미디어 음악공연이 이뤄진다. 이번 공연에는 멀티미디어 음악공연과 멀티미디어 설치작품의 전시가 함께 마련돼 다양한 실험정신이 공존(共存)하는 새로운 문화예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신혜 기자 leeshin@dgu.edu

2009 동계방학 국가근로장학(외부업체) 신청 안내

1. 취지

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 장학제도 운영으로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을 통한 실질적 수혜제고
나. 재학 중 전공 관련 근로 경험 축적을 통한 현장적응력 및 취업능력의 제고

2. 지원자격 : 정규과정 재학생

3. 선정기준

가. 재학 중인 정규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우선순위로 선정함.
나.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09년도 정부보증학자금 무이자대출자
다. 2순위: 09년도 정부보증 학자금 저리 1·2층 대출자
라. 3순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 이하인 세대의 학생
마. 4순위: 기타 가계가 곤란한 자(대학별 배정금액의 30% 범위 내)
- ‘대학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수업료의 면제·감액 대상이 되는 학생 등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은 세대당 또는 개인당 납부한 ‘07.1.1부터’ 08.12.31까지 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중 최저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전국 평균의 기준은 ‘07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함

※ ‘07년도 건강보험료 평균 납입금액(국민건강보험공단)

구분	직장보험		지역보험	
	세대	개인	세대	개인
평균금액(원)	62,430	23,449	55,054	24,065

4. 근무기간 : 2009.12.21(월) ~ 2010.2.28(일)

5. 근로조건 : 시간급 ₩9,000

가. 방학 중 주당 40시간 이내 근무
나. 지급방법 : 익월 7일 개인 통장으로 입금
다. 국가근로 장학금은 타 장학금과 이중수혜 가능
라. 연간 최대 수혜 금액은 1인당 11,000,000원으로 제한

6. 근로장소 : 업체 선정 중 (국가근로장학 신청자pool을 이용한 업체 선정 방식)

가. 전공 관련시설
나. 비전공 시설

7.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국가근로장학생 지원신청서 및 희망원 각1부를 학생서비스팀에 제출
※ 지원신청서 : http://www.studentloan.go.kr 에서 작성 후 출력
※ 희망원 : 홈페이지 공지사항 다운로드
※ 신청 및 접수기간 : 2009.11.25(수) ~ 2009.12.3(목)
나. 국가근로 장학생 선정기준별 증빙서류 (장학생 선발 후 제출)

8. 선발일정 : 추후 공지 예정

학사 지원본부장

“디아스포라 고정관념 깨고 재인식 필요” 국문과 BK21사업단, ‘제 1회 한국어문학 차세대 포럼’ 개최



▲ 이날 열린 ‘차세대 포럼’ 제 1분과에서 발표하고 있는 우리대학 하정수씨.

우리대학 국어국문학과 BK21 사업단이 주최한 ‘제 1회 한국어문학 차세대 포럼’이 지난 20일 본관 및 명진관에서 열렸다. 이번 ‘한국어문학 차세대 포럼’은 전승과 번역이라는 개념을 통해 초국민국가적 세계를 조건으로 하는 한국어문학의 역사적 형상을 복구하고, 전 지구적 세계를 향해 개방된 학풍을 새로운 학문세대에 육성하고자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총 4분과로 나눠져 각 분과별로 한 가지 주제(主題)를 정해 발표 및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제 1분과는 ‘한국어학의 어제와 오늘’이란 주제로 본관 104호에서 진행됐으며 총 7명의 박사과정 대학

원생들이 발표를 맡았다. “‘안디’ 부정문의 피부정어 형식과 변천’이란 주제로 우리대학 국문학과 박사과정 김지오 씨가 발표했다. 김지오 씨는 “거시적으로는 동명사어미 ‘-니’, ‘-르’가 명사적 기능(機能)을 점차 잃고 다른 형태로 전성(轉成)되어 가는 과정은 동일하지만 미시적으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성됐는가에 차이(差異)를 보인다”며 “‘-르’의 전성이 ‘-니’의 전성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됐고, 명사문 부정의 피부정어 환경에서만 ‘-르’가 관형사형이 아니라 제 3의 형태로 전성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제 2분과는 ‘고전(문학)의 전승과 소통, 그 방법론적 모색’이란 주제로 7명의 발표자가 참가한 가운데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우리대학 국문과 서기호 씨는 ‘문답체 산문의 연원과 전승-이규보의 문답체 산문(散文) 수용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중국의 문학이 우리 문단(文壇)에 끼친 영향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우리의 구어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표기수단이 없었을 때, 우리는 중국의 표기수단인 한자를 빌려 문학을 창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 3분과에서는 ‘미디어 이동 문화변역’을 주제로 6명의 발표자가 명진관에서 의견을 나눴다. 충남대 국문과 박사과정 정형경 씨는 ‘영화로 재현된 디아스포라 연구’를 주제로 디아스포라를 포착하고 있는 한국영화를 통해 정체성의 문제와 소통의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영화 속 등장인물 유색인(有色人) 즉 디아스포라를 여전히 고정관념으로 정형화된 인식의 틀 안에 갇혀 바라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며 “타자담론 안에 포획되어 차별을 위한 차이를 조장(助長)하는 전근대적 사고의 틀을 부수고 우리 안에 있는 디아스포라를 재인식할 때”라며 발표를 마쳤다.

마지막 제 4분과는 ‘한국문학의 양식과 전승’이란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총 6명의 발표자가 참가했으며 ‘전승의 불가능과 번역의 불가능’, ‘만주 개척서사의 나타난 ‘교육’과 ‘계몽’의 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발표 및 토론했다. 4분과에서 발표를 한 정훈 씨는 부산대 국문과 대학원생으로 ‘김지하 미학의 전통과 반전통- ‘그늘 미학’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이번 ‘차세대 포럼’에 참가했다. 그는 이번 발표에서 “김지하의 미학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그는 미학이다”며 “그의 미학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그늘 미학’이 그의 현대사 분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주로 다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늘 미학이 민족미학 전통의 핵심(核心)을 고스란히 물려 받고 있으면서도 이에 갇혀 있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BK21 사업단장 정우영 교수는 이번 ‘차세대 포럼’에 대해서 “한국어문학 연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가 차세대 연구자들이 새로운 문제의식을 수렴(收斂)하고 활발히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지연 기자 lly88918@dgu.edu



▲ 학술발표회 마지막 발표를 맡은 김지희(정치외교 4)양.

“남북관계, 상호발전 이뤄야한다” 정치학 연구회, 남북관계에 대한 다각적 의견제시

정치, 사회 문제를 연구하는 학술 동아리 정치학 연구회가 ‘남북현실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로 지난 13일 문화관 덕암 세미나실에서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학술발표회에서 제 1발제를 맡은 정치외교학과 2학년 홍명근 군은 “대북원조가 과거에 비해 규모가 증대(增大)됐지만 정치, 안보 논리에 의해 안정적 운영에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며 “단편적인 원조가 아닌 공격개원조(ODA)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 2발제를 맡은 김형환(정치외교 3) 군은 “북한의 전력, 운송 시설 등의 인프라가 열악(劣惡)하고 정치적 불안정과 북한 법제상의 문제들을 공동 경영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광물자원 협력 사업은 경제성장과 우호(友好)증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제 3발표자 박민준(정치외교 3) 군은 “남북 관계가 정치상황에 종속적(從屬的)이며 북의 경직된 태도, 제한적 인사 중심의 교류 등의 문제가 있다”며 “도시 간 자매결연은 원

조 및 자문의 연결고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서독의 사례를 볼 때 지자체 간의 교류협력이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지자체 간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김지희(정치외교 4) 양은 “청소년 세대의 수가 증가 중이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그들이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GO와 대안학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입법 예정인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이 완화(緩和)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오세진 기자 viva5@dgu.edu

파워엘리트장학생 유학 후기 (3) 최호정 컬럼비아대 인도불교미술사 전공 오바마 달변 비결은 토론식 수업 토론 통한 풍부한 논의로 사회적 인재 배출



미국 대선 직후, 국내 언론사 한 군데에서 컬럼비아대학의 토론문화를 취재하러 와 학생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오바마의 달변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 학부시절 익힌 토론문화라고 본 것입니다. 컬럼비아대에는 강의식 수업과 토론(討論)식 수업이 공존합니다. 토론식 수업의 경우, 수업 내용을 미리 수업 홈페이지에 올랐던 논문, 자료 등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소화시킨 후, 수업 시간에는 이 내용을 각

자의 입장에서 이해했다는 전제 하에서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강의식 수업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수업관련 논문을 2~5편 읽고 이해했다는 전제하에서 교수님의 강의를 이루어집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궁금했던 내용을 수업 내내 질문하여 어떤 날은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이 끊이지 않기도 하고, 토론식 수업과 마찬가지로 긴 토론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 학기를 마칠 때쯤 보니, 저에게 충격을 준 질문을 했던 그 학생은, 본인의 전공도 아닌 인도불교 미술사에 대해 교수님 앞에서 자신의 관점을 논리적으로 피력(披瀝)할 정도로 지적으로 훌륭 성장했습니다. ‘이상한’ 질문으로 수업의 흐름을 방해한다거나, 남들의 기분을 안 좋게 하는 것을 꺼렸던 저는, ‘애초에 이상한 질문이라는 것은 없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과 토론수업을 하면서 질문과 토론수업을 더 이상 부담이 아닌 생활의 일부로 서서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수업 방식이 좋지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수업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지식을 습득(習得)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어디에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강의처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질문하는 사람의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 뭔가 궁금한 것이 있으나 질문자 자신이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틀린 질문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질문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굳이 ‘학제간연구’, ‘통섭’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여러 분야의 예를 적용하며 풍부한 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의 수업을 되돌아보면, 선생님께서 자유롭게 토론을 해보라고 하시던 교실에 적막(寂寞)이 흘렀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잠깐 동안 토론이 진행된 적이 있어도, 말을 잘하고 아는 것이 많은 학생 위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골고루 의견을 주고받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몇몇 학생들은 저처럼 다른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고, ‘질문해도 되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두려워하면 감히 버린다는 어느 선생님의 글귀처럼 말이지요. 앞으로의 여러분의 강의에서, 나아가 모든 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소통할 수 있는 나날들을 보내보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최호정 (선학04졸)

해외유학 취업 승진의 필수 자격증
글로벌 국제자격의 리더
Beyond the Global Standard

국제공인IT자격

ICDL

International Computer Driving Licence

사용자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인증하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자격입니다. UN(United Nations)이 활용하는 유일한 국제공인 IT자격입니다.

국제공인IT자격 ICDL이란?

ICDL(International Computer Driving Licence)은 전 세계 148개국에서 42개 언어로 9백여만 명이 취득한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컴퓨터활용능력의 국제공인IT자격입니다.

ICDL 시험 모듈(과목) 구성

시험과목(모듈)	S/W Version
M1. 정보통신기술(ICT)의 개념	MS Office XP 2003 2007 한글 2007 Internet Explorer
M2. 컴퓨터 활용 및 파일관리	
M3. 워드프로세싱	
M4. 스프레드시트	
M5. 데이터베이스	
M6. 프레젠테이션	
M7. 웹 검색 및 커뮤니케이션	

ICDL 활용사례

글로벌기업
UN 사무국 및 유엔연합 집행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구와 다국적기업에서 IT 능력을 판단하는 기본 과정으로 활용국채공인IT자격입니다.

국내기업
국내 대기업 및 공기업, 협회,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입사원 선발, 직원 직무교육, 인사고과 등으로 활용

대학
국내 대학 4년, 2년제에서 교양교육 및 학점 인정, 졸업인증 자격, 대학생 취업경쟁력 향상 교육과정으로 도입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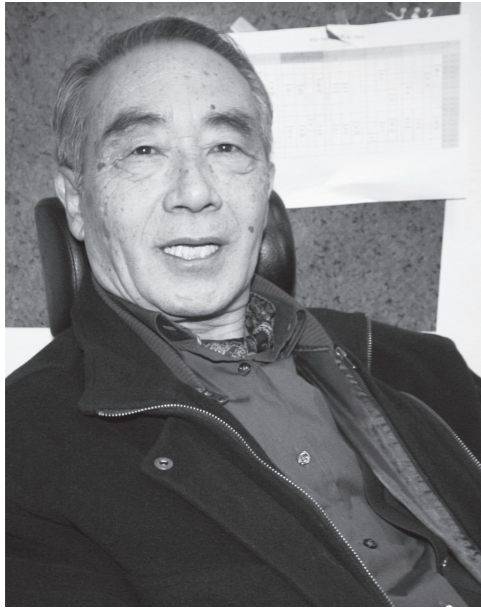
주관: 한국생산성본부 KOREA PRODUCTIVITY CENTER ICDL Korea

ICDL 홈페이지 www.icdl.or.kr Tel: ICDL Korea 1577-9401

저자 인터뷰

“연기는 과학과 기술이다”

‘배우수련’ 저자 안민수 석좌교수 인터뷰



▲최민식, 박신양 등 여러 대배우들을 길러낸 ‘배우수련’ 저자 안민수 석좌교수

흔히 연기가 되기 위해선 끼와 재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민식, 박신양 등의 배우들을 가르친 안민수 석좌교수의 생각은 달랐다.

안 교수는 “내가 가르친 제자 중 될 사람만 성공했다”며 “지금의 대스타들은 다 피

와 땀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실정(實情)에 맞지 않는 외국 연기 지도자들이 많은 현실(現實)이 안타까워 강단과 무대 위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모든 연기에서 보편적으로 필요한 점들을 담은 ‘배우수련’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 번역서들은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설명하는 경향(傾向)이 강하고 우리 정서를 표현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며 “내 책은 몸과 마음은 하나의 유기체(有機體)란 생각위에 쓴 것이고 외국 책보다 우리 정서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의 책은 전문적인 배우가 되려는 사람과 진지하게 배우를 지망(志望)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다. 그는 “배우의 매체는 몸”이라며 “자유롭게 표현해야하고 정확한 우리말 구사력 등의 외적요소와 대본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배우의 영혼의 성숙(成熟)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과 모든 장르에서 깊고 폭넓은 연기를 한 로렌스 올리비에를 존경한다는 안민수. 그는 대배우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부단한 노력(努力)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민식, 박신양, 김혜수 등 지

금의 대스타는 타고난 배우가 아니었다”며 “그들이 학창시절에 보여준 남다른 노력이 오늘의 그들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르치고 있는 제자, 그 당시 가르쳤던 제자들 모두 하나같이 소중하다”며 “언제나 노력하는 그들을 보면 그들이 앞으로 대스타가 될거라 확신(確信)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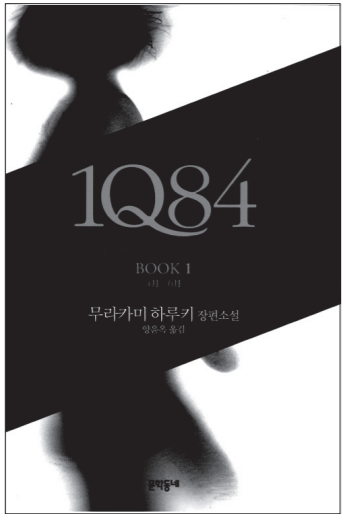
이제 고희(古稀)를 바라보는 안민수의 인생이 담긴 ‘배우수련’은 어떤 특정한 형태나 양식을 전제하지 않는다. 그는 “연기는 과학과 기술의 표현”이라 말한다. 그는 “관객을 감동시키기 위해 나오는 감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표현하는가는 재능과 기도 중요하지만 스승의 가르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언제나 배우려는 자세로 연기하라”, 이는 그의 연기철학이다. 그는 인터뷰 도중에도 여러 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우는 시절에 좋은 스승 밑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안민수 교수가 쓴 ‘배우수련’은 몸과 마음을 다루는 법, 대본 분석법 등이 있어 연기자를 지망하는 학생에게 추천할 만한 도서다.

오세진 기자 viva5@dgu.edu

이주의 새책

애절하지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1Q84 1, 2권

지은이 무라카미 하루키 옮긴이 양윤옥 퍼넨북 문학동네 29,600원 / 1200쪽

소설 ‘1Q84’으로 5년 만에 돌아온 무라카미 하루키. ‘상실의 시대’, ‘해변의 카프카’ 등을 통해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자아낸 그가 이번 작품 ‘1Q84’에서는 독자들이

게 어떠한 감동을 줄 것인지 기대된다.

제목 ‘1Q84’의 Q는 숫자 9의 일본발음과 같다. 따라서 ‘1Q84’는 1984년을 의미한다. 저자는 두 주인공들이 살아가는 ‘1Q84’를 가정폭력, 아동학대, 종교적 광신(狂信) 등 폭력으로 얼룩진 세상인 반면 신념과 광기(狂氣), 선과 악, 꿈과 현실이 뒤얽힌 공간으로 묘사한다. 소설은 입시학원 강사이며 소설가 지망생인 남자 주인공 덴고와 헬스클럽 강사이면서 청부살인을 하는 여자 주인공 아오마메의 애절한 사랑을 그린다.

이치카와 초등학교의 동창인 두 사람은 학교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적도, 친하지도 않았다. 단지 단 한 번 손을 잡았을 뿐이다. 그때의 경험은 서로를 격려해 준 기억으로 남았다. 그 한 번의 경험으로 그들은 서로에게 운명적인 존재가 됐다.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여자 주인공 아오마메는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약적인 존재들을 청부살해하는 킬러가 되어 살아가고, 덴고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불륜의 정사를 위

안 삼는 소설 지망생으로 살아간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두 주인공이 만나게 되는 세상은 현실이 아닌 달이 두 개 있는 세상, 바로 1Q84였다. 하지만 그 곳은 비현실적인 세상이기에 두 주인공은 그들의 사랑을 확인하는데 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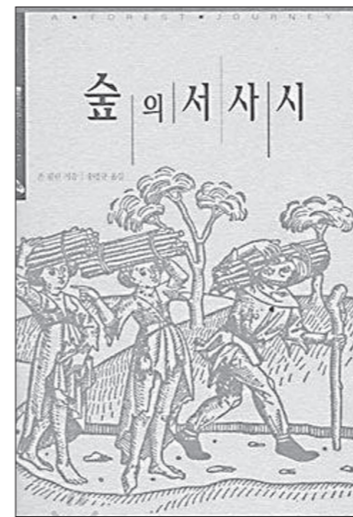
소설 마지막 부분에서 덴고는 “아오마메를 찾자. 무슨 일이 있건, 그곳이 어떤 세계이건, 그리고 그녀가 누구이건”이라며 다짐한다. 어두운 세상으로 묘사된 1Q84를 살아가는 아오마메와 덴고는 끊임없이 방황(彷徨)한다. 하지만 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1Q84라는 세상이 있다는 것, 그래서 서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작은 희망이 된다. 결국 그들은 1Q84라는 시대를 살아가기로 한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5년 만에 신작이라는 사실만으로 ‘1Q84’는 수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토록 독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그의 소설이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단비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김윤수 기자 yshero21@dgu.edu

오충현 교수의 독서산책

인류, 광활한 자연의 품으로



숲의 서사시

지은이 존 펠린 옮긴이 송명규 퍼넨북 따님 20,000원 / 413쪽

우리는 현재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에 거주(居住)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 도시에 몰려 살고 있으며,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서울의 경우 전체 국민의 약 사분의 일이 모여 살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시화 과정은 인류문명의 출발과 함께 시작되었지만 현재와 같은 급격한 도시인구 증가는 산업혁명(産業革命) 이후 진행된 결과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현재에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도시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그 증가비율이 다소 낮고 개발도상국의 경우 그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는 차이(差異)가 있을 뿐이다.

도시생태학을 전공한 필자에게는 이와 같은 도시화과정에서 사라져가는 자연 자원을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가장 큰 연구 과제이다. 그 보존 방법으로는 자연 생태계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에서부터 훼손(毀損)된 자연을 복원(復元)하거나 복구(復舊)하는 방법, 또는 이미 기성 시기까지 만들어진 공간에 자연을 인위적으로 도입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고려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시화의 문제를 도시화 과정의 자연훼손을 나무라는 대상을 통해 쉽게 설명하고 있는 ‘숲의 서사시’라는 책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은 이 분야의 전공서적이 아니며, 저자 또한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수집하여 서술하는 작가이다. 그래서 책을 읽는 느낌이 딱딱하지 않고, 편안한 역사 책을 읽는 느낌이 든다. 숲의 서사시는 1988년에 발간된 책이지만 우리나라에는 2002년 번역본이 나오면서 유명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숲의 서사시’라는 제목으로 출간(出刊)되었지만 당초 원제목은 ‘숲의 여행 : 문명발달에 있어서 나무의 역할’이다. 실제 내용을 읽다보면 숲의 서사시(敘事詩)라는 제목이 조금 추상적인 반면 원제목은 책이 가진 내용을 우리에게 훨씬 잘 전달해준다는 생각이 든다.

책의 내용은 문명이 시작되고 나무에 대한 벌채작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그리스, 로마, 이슬람, 르네상스 시기의 베네치아, 영국, 브라질을 거쳐 19세기 후반의 미국에서 끝을 맺고 있다. 저자는 미국에서 이 시기가 서구 국가로는 마지막으로 나무시대를 마무리 하여 연료와 건축자재였던 나무가 석탄과 철에게 자리를 내준 시기라고 설명하고 있다.

청동기 시대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회는 일차적으로 연료와 건축자재를 나무로부터 얻었다. 따라서 나무의 풍부함과 부족은 당시 사회의 문화, 인구, 경제, 정치, 외교, 기술의 상당 부분을 좌우하였다. 당연히 이로 인한 전쟁도 불사되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연료와 건축자재로 석탄과 철재를 이용하면서 나무로부터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끝은 지구온난화 및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의해 다시금 순환 가능한 자원인 나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류문명의 생존여부가 비교적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했던 나무와 자연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시대로 다시 회귀하게 된 것이다.

숲의 서사시는 이런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 책을 덮고 나면 우리가 처해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저자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결론이 책의 내용과는 별개로 우리 머릿속에 명징하게 남는다. 이 책을 통해 환경훼손을 담보(擔保)로 이루어진 현대문명에 대한 자성과 인류문명의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글을 줄인다.

〈환경생태공학과 교수〉

불교대학원 2010학년도 전기 석사 및 지도자 과정 모집 안내(야간)

1.모집학과 및 인원

Table with 3 columns: 학과, 전공, 모집인원. Rows include 불교, 불교사회복지, 생사의례, 불교문화콘텐츠, 명상심리상담.

2. 지원자격

- 석사과정: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자 또는 2010년 2월 학위취득 예정자, 국내·외 대학원 석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예정자,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지도자과정: 각 불교 종단의 스님, 각 신행단체의 임직원 또는 신심이 돈독한 불자로서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자

3. 전형일정

Table with 3 columns: 구분, 일자, 장소. Rows include 원서 교부 및 접수, 전형일.

4. 특 전

-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취득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재직승려, 조계종 중무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불교언론인, 불교계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 - 생사의례전공 석사학위취득자 또는 지도자과정 수료자는 정례지도사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로 문의바랍니다. / TEL 02-2260-3097-8 FAX 02-2260-8627 http://gsbs.dongguk.edu

불교대학원

불교대학 모의토의 실시 안내

불교대학 재학생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불교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매학기 2회 모의토의를 실시합니다. 모의토의 점수는 앞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니 응시하지 않음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셔서 전원 참여바랍니다.

- 1. 대 상 : 불교대학 재학생 2. 접수기간 : 11.18(수) 10:00 ~ 23(월) 17:00까지 3. 접 수 처 : 불교대학 학사운영실 4. 응 시 료 : 없음 5. 시 험 : 2009. 11. 27(금) 18:00 ~ 20:00 - 시험장소 : 명진관 또는 만해관 지정 강의실 - 2009. 11. 27(금) 오전 홈페이지 게시 시험장소 필히 참조할 것 6. 시험시 주의사항 가. 부정행위 적발시 징계조치(예: 대체강좌 수강 불능) 됨. 나.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접수증, 연필(샤브) 다. 17시 30분까지 입실하시기 바람. 라. 시험시작 시간은 18:00부터이며 Listening 시험 관계로 17:55부터 교사장 출입이 금지됨. 마. 신분증, 고지서(접수증)를 소지하지 않으면 입실할 수 없음.

7. 문 의 : 불교대학 학사운영실(만해관 1층, 2260-3098)

8. 불교대학 시행 모의토의 점수의 활용

- 외국어(영어) 능력이 일정수준 이상 향상시 불교대학에서 지급하는 불교대장학, 모범장학 등 각종 장학금 지급 사정시 가산점 부여 - 외국어(영어)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 향상시 소정의 향상지원금(문화상품권) 지급 예정 - 졸업인증 요건 중 외국어(영어) 시험(영어 졸업패스제) 점수로 제출 가능

9. 불교대학 졸업패스제 외국어(영어) 토의 점수 기준

Table with 5 columns: 구분, 2001-2005, 2006-2007(2008), 2008(2009), 2009(2010)-. Rows include 일반, 스님.

불교대학



임현식
반도체학과 교수

달하나 천강에

자신감과 계획

대략 한국인의 평균 나이를 80세로 잡았을 때 대학 4년의 시간은 개인의 인생 중에서 20분에 1에 해당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인생기에서 황금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짧은 대학 기간 동안에 배우고 느끼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남은 인생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학생들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대학교에 막 입학한 신입생들은 대학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자유, 학문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입학했을 것이다. 그러나 점차 이러한 대학 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낭만(浪漫) 및 꿈은 현실 세계에 대한 무한 경쟁에 부딪치면서 잃어버린다. 대학 신입생 때 가졌던 자신감은 무기력감으로 변해가고 대학 졸업반이 되면 마치 고3 때의 입시생처럼 좋은 직장 대기업 취직이라는 목표를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나머지 인생 50-60년에 대한 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쩌면 사치스럽게까지 느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대학 생활 이후 나머지 인생 동안의 후회없는 선택을 위해 대학생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선 자신감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 대학 4년이라는 기간을 취업에 위한 준비기간만으로 보내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기도 전에 버리는 행동이다. 자신이 가졌던 꿈을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같은 또래의 세계 우수(有數)한 대학 젊은이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미래에 대한 계획과 실천 방법을 철저히 준비하자. 비록 완전히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지라도 계획을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크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 하루하루 또는 일주일을 보낸 후 자신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확인해 보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여가 및 취미 활동을 즐기지 마라는 것이 아니다.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취미 및 여가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닌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학 4년 동안의 시간과 이후의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이 같을 지라도 사람이 느끼는 상대적인 시간의 속도는 다르다.

똑같은 시기에 같은 대학 같은 학과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20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서로를 만날 것이다. 먼 훗날 자신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모습에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 학생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대학 생활을 보내길 바란다.



동문칼럼

김명도 경제학과 74졸
영진로지스틱스(주) 회장

양반적인 상훈(商魂)

국제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약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형태의 불법 몰류 거래 관행이 성행한다. 이는 국가 경제를 잠먹고, 나아가 국제 수지 신장에 위배되어 수출제조업체의 원가 상승을 초래한다. 이를 자행하는 일부 해운 항공 업체의 자성과 건전한 상훈을 가지기를 권면(勸勉)하는 글을 쓰고자 한다.

잘못된 해운항공 운임 관행

현재 해외 무역 거래에 있어서 수출국 또는 해운 항공 업체에 무선임을 보장하는 형태로 과도한 대외 송금을 함으로써 정상 해운 운임의 최소 5배에서 10배를 화주(貨主)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일상화되어 많은 국부를 해외 유출하고 있다.

이는 수출 제품을 제조 수출하는 업체와 더불어 내수에 공여(供與)하는 원자재 값의 원가 상승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10여 년간 이러한 불법 거래 관행에 있어 2-3년 전에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민원을 받아들여 이러한 불법 사례를 수집하였으나

나라 살림을 맡은 당국은 자유시장 원칙에 따라 뇌물도 거래상의 한 관행이라고 가볍게 봉합하였으며 이를 직접 규제하는 관세 당국에서 간접적인 행정 규제를 가하고 있지만 이는 미봉책(彌縫策)에 지나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이윤추구에도 원칙은 있다

아무리 기업이 이윤 추구를 모토로 하고 있다지만 어떠한 기업업인지 하여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잘못된 해운항공 운임 관행은 외환 관리법, 관세법, 불공정 거래법에 정면으로 재촉되는 이윤 추구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항유하고 있는 업체는 모름지기 경제 대국의 체면과 더 나아가 재주는 꿈이 부리고 과일은 뭐 하는 것이 따먹는데 편승하는 잘못된 거래 관행은 앞으로 절대 피해야만 한다.

또한 나라 살림을 맡은 당국도 통상 외교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 파악을 통하여 해운 협정 등을 맺거나 개정할 때 이를

반영하여 불공정 거래 시정(是正)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왔으면 하는 기대가 크다. 더욱이 해운 항공 업체, 보세 창고 업체 등은 이익 주체를 정상 가격에 준하여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한다.

이 또한 어렵다면 보세창고 자율화 요건에서 관세청 요건 승인제 정책을 전환하여 모든 거래 당사자가 윈-윈 할 수 있는 거래 관행이 정착하게 되었으면 한다.

이젠 클린 코리아가 필요할 때

끝으로 우리는 이제는 수출 총액 4,224억 불을 시현하며 국제무대에서 경제 강국으로 대접을 받고 있는 경제대국이다.

국제 상역 외교와 IT, 문화교류(한류)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럴 때일수록 모든 행동거지의 원칙과 자국 내의 관행을 국제적인 스펙에 맞춰 "Clean Korea"를 만드는 양반스러움을 가져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는 각 경제 주체가 건강한 상훈을 고양(高揚)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학생칼럼

양동석
정치외교학과 4학년

권리는 잠자는 자 위에 있지 않다

현재 대학생들이 88만원 세대라고 한다. 1학년 때부터 학점관리와 토익공부에 매진(邁進)해도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 설령(設令) 취업을 했다라도 고용불안에 불안정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 결혼을 하려 해도 돈과 직장 때문에, 설령 결혼을 했다라도 아이들 양육비, 교육비에 생활은 불안하기만 하다. 열심히 해도 행복할 수 없다면 이미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답답한 현실 바꾸는 무기, 투표

기성세대들은 우리에게 이 구조를 바꾸길 원한다면 쟁돌과 바리케이트를 들라고 하지만 쟁돌과 바리케이트까지 들지 않더라도 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방법은 있다. 바로 투표(投票)다. 우리의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당, 정치인에게 우리의 표

를 던지면 된다.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사람들은 정치인들이고 정치인들은 표에 가장 민감하다. 자신에게 표를 던질, 표를 던진 사람들을 위해 그들은 일한다. 그러나 모든 연령대에서 20대의 투표율이 가장 낮으며 정치 참여에도 소극적이다. 현실을 바꿀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들 등록금은 못해도 350만원, 많은 곳은 500만원이 훌쩍 넘는다. 그래도 매년 등록금은 오른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자금대출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선 결코 좋을 수 없다. 오르는 등록금에 불평하는 우리이지만 정작 그 문제에 대한 참여는 미미(微微)한 실정이다. 등록금 뿐 아니라 말 많았던 학제개편부터 작게는 휴게공간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신을 위한 진정한 변화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진정 우리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이 되려면 그 참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손쉽고도 확실한 방법은 역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다.

학교의 주인이 되기 위한 선거참여

총학생회를 비롯한 중앙기구, 그리고 각 단과대별 학생회 선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그 선거들의 투표율은 50%를 간신히 넘고 있는 수준이다. 올해 선거에서부터 우리의 권리를 찾아나가자.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한 진정한 변화를 우리 스스로가 이끌어 내 보자.

'권리는 잠자는 자 위에 있지 않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超越)한 이 격언은 지금 우리에게 적절하고 또 가장 절실한 말일 것이다.

사·진·에·세·이



성금 다가선 초겨울 캠퍼스에 매달린 까치밥 몇 개.

김윤수 기자 yshero21@dgu.edu

육군 학사·여군사관(장교) 모집

보람있는 대학생활을 장교로 입원!
꿈을 펼쳐리!

- **지원자격**
 - 연령 : 임관일 기준 20~27세 이하인 자
 - 학력 :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로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졸업예정자 : 2010년 2월 기준
- **입교 / 임관일** : 2010년 5월 / 10월
- **지원서접수** : 11. 2 ~ 12. 4
 - 인터넷 접수(www.goarmy.mil.kr) 접수 - 서류제출(육군인사서령부)
- **선발절차**
 - 1차 : 필기평가, 대학성적, 서류전형
 - 2차(최종) : 면접평가, 체력검정,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회
- **문의처 및 모집안내**
 - ※육군인사서령부 선발담당관 : 02-505-7183, 042-550-7183
 - ※육군대표전화 : 1588-6953(육군으로 오심 ~****)
 - ※www.goarmy.mil.kr(육군모집)

육군본부



시론

친일청산의 마지막 기회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

드디어 우여곡절 난산(艱難辛苦) 끝에 친일인명사전이 세상에 나왔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출범한지 18년 9개월 만이며,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구성돼 편찬 작업에 착수한지 꼭 7년 11개월 만이다.

자신의 아버지를 친일로 기록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친일문제 연구의 선구자로 『친일문학론』의 저자인 임종국 선생이 돌아가신지 꼭 20년 만에 후학들이 이룬 성과다. 임종국 선생은 이른바 '재야사학자'다. '강단 사학자'들이 애써 외면했던 친일문제연구라는 외로운 길밭을 들고 들만에 홀로 선 분이다.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그러하듯 임종국 선생 역시 연구에 전념하느라 가족을 돌보는 일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 임문호를 『친일문학론』 안에 친일로 써넣어야만 했던 고뇌는 어땠을까. 컴퓨터도 없던 시절, 싸구려 수첩에 빼곡히 적어 놓은 약 2만여 명의 친일인명카드를 20년 후 친일인명사전이 있게

한 밑알 바로 그 자체였다. 원로시인 이기형은 임종국 선생의 혈고인 친일인명카드가 팔만대장경처럼 여겨질 때 비로소 우리 역사가 바로 설 것이라고 역설(逆說)했다.

친일인명사전의 연혁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60년 전인 1949년 6월에 일어난 두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1949년 6월 6일 백주대낮에 친일경찰들에 의해 무장해제를 당하고 무릎을 꿇어야 했던 반민특위(反民特委) 습격사건과 20일 후에 일어난 백범암살사건 말이다.

반민특위 습격과 백범 암살

백범 암살을 정점으로 하여 이 땅에서 친일청산은 민족적 염원이 아니라 빨갱이의 농간이요 국론분열행위로 간주되어, 철퇴를 각오해야만 했다. 여전히 60년 전 친일청산 반대 논리는 토씨 하나 바뀐 적이 없는 채 반복되고 있지만 희망적인 것은 친일인명사전의 발간 과정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참여였다.

친일의 원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기득권자들의 방해로 여러 차례 사전 발간이 난관

에 부딪힐 때마다 어김없이 시민들이 나서 주었다. 대표적으로 2003년 말 단 11일 만에 국민모금을 통해 5억 원을 모아준 일과 이에 앞선 1999년 사전 편찬을 지지하는 전국 교수 1만인 서명이 그것이다.

국민 손으로 이뤄낸 친일인명사전

이러한 자랑스런 기록은 대한민국이 2차대전 종료와 함께 진행된 파시스트와 그 협력자 처벌이라는 시대정신을 따르지 못한 유일한 나라라는 오명(汚名)을 벗기 위한 민간차원의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다. 아마도 당분간 친일인명사전을 능가하는 근현대인물사전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 만든 사전이기도 하거나 역으로 말하면 친일문제연구가 일천한 우리 현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은 국민이 친일파를 규탄(糾彈)하지만 정작 친일파 이름을 말해보라하면 몇 명이나 말할 수 있을까. 아마도 열명을 거명하기 힘들 것이다. 그런 점에서 친일인명사전은 친일청산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일 뿐이다.

사설

약학대학 유치에 총력 다 해야

약학대학(이하 약대) 신설(新設)과 정원 증원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내년 1월로 다가온 가운데, 고양시와 지역단체가 우리대학의 약대 유치 지원에 적극적으로 동참(同參)하고 있다. 고양시와 고양시의회, 경기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약사회, 시민단체 등이 '동국대 약학대학 유치 지원단'을 발족(發足)한 것이다.

약대 유치는 이제 '제 2의 로스쿨'이나 다름없다. 특히 우리대학의 경우, 경기지역에 할당(割當)된 100여 명의 정원을 두고 10여 개의 대학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각각의 대학들은 지역과의 긴밀한 공조, 대학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 다양한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며 약대 유치에 올인하고 있다. 우리대학도 '미래 우수약무(GPP) 수행약사 양성 및 약학의 세계화'라는 구호를 내걸고 약대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국립암센터 등을 포함한 경기 북부의 지역병원과 협약을 완료했고, 지역 보건소 및 약사회, 30여개 제약기업 등과의 상호협력력을 위한 협약도 현재 추진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양시의 약대 유치 지원 가세는 말이 필요없는 최고의 원군(援軍)이다. 일산동구 식사동 부지에 조성되는 고양메디컬러스터에는 의생명과학캠퍼스와 우리대학 일산병원을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연구소, 벤처연구타운, 의료복지타운, 의료서비스 시설 등 바이오 관련 인프라가 집중 배치될 예정이다. 이에 약대까지 유치한다면 고양메디컬러스터는 미래의 신성장동력인 생명과학분야(BT) 산업과 인재 양성을 선도(先導)하는 최첨단 의료복합단지로 성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고양시는 연구지원시설 지원, 국책과제 유치 시 대응자금 제공, 제약기업 연구소 세제혜택 등의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 방안과 검토계획을 내놓는 등 우리대학 약대유치를 위해 최대한의 협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약대 유치야말로 우리대학이 지난 로스쿨 유치에 이어 다시 한 번 총력(總力)을 기울여야 할 과제다. 로스쿨 유치 당시, 부당한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우리대학이 재정적, 심정적으로 입은 피해는 추산(推算)하기 어려울 정도다. 지난 실패를 거울삼아 이번에는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완벽한 전략과 철저한 준비, 그리고 고양시와 동국인 모두가 협심(協心)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메아리

자고현량(刺股懸梁)

김활란 기자
lan@dgu.edu

▲'자고현량(刺股懸梁)'이란 고사가 있다. 중국 한(漢)나라 때의 대학자였던 손경은 공부를 하다 졸음이 오면 노끈으로 머리 카락을 묶어 대들보에 매달았다. 고개를 떨구면 노끈이 팽팽해지면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겼고, 다시 학문에 몰두했다. 또 전국시대 6국의 재상이 됐던 소진은 송곳으로 넓적다리를 찔러 잠을 쫓아가며 공부했다. '머리카락을 대들보에 묶고, 허벅지를 송곳으로 찌른다'는 뜻으로 분발하여 학문에 정진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지난 10일 우리대학 내 러시아 과학원 산하의 IMT와 미국 UCLA의 CNSI 분소 연구소가 설치됐다. 이는 강태원(물리학) 교수의 'IMT와 CNSI 기관 유치를 통한 나노·정보 기술 연구 과제'가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도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쾌거다. 우리대학은 이번 분

소 사업소의 설치를 계기로 향후 6년간 분소 운영을 위한 40억 원의 국고 지원금은 물론, IMT와 CNSI 연구소로부터 각각 22만 달러, 67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세계적으로 저명(著名)한 연구 기관들이 학내에 들어선다는 점, IMT, CNSI연구소와 함께 NT·IT 융합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소의 유치로 발생하게 될 기대효과는 상당하다.

▲해외 우수 연구소의 유치로 강태원 교수가 회자(膾炙)되고 있다. 강 교수는 '반도체 연구'와 관련해 쌓아온 업적이 많다. 한국과학재단이 주관하는 우수연구센터 평가에서 양자 기능 반도체 연구센터는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또한 NASA 출신의 연구원부터 해외에서 직접 연구소를 운영하던 연구원까지 그들의 이력(履歷)은 화려하기만 하다. 강 교수 스스로도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연구원들에게 지시를 내릴 수 없을뿐더러, 지시를 해도 따르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정도다. 연구에 대한 연구원들의 흥미유발과 지속적인 관심을 끌어내야 하는 것은 강 교수의 몫이다.

▲해외 우수 연구소의 유치, 강 교수의 끊임없는 연구 성과는 고무적이다. 크기는 물론 기능까지 개선시키는 반도체 연구이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태원 교수의 자고현량 덕분에 대학이 한 발 더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중앙일보 대학평가 이후, 교수들의 연구 부분에 대한 학내 여론은 대부분 회의적이다. 학내 여론을 되돌릴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이 때, 분소 연구소의 설치에 호호(呼號)할 수 있는 좋은 계기다. 부디 자고현량하는 교수들이 많아지고 덩달아 학생들도 자고현량했으면 한다.

만평

우리의 소중한 한 표, 동국 발전의 초석



백선아 기자 amy@dgu.edu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WEEKLY NEWSPAPER 1950년 4월 15일 창간
발행인 오영교, 편집인 김용현, 편집장 정웅재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중앙도서관 영화상영회 11월 프로그램 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도서관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영화상영회를 개최하오니 동국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 기 간: 2009.11.02 ~ 27(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2. 일 시: 월 ~ 금요일, 14:00~
3. 장 소: 중앙도서관 멀티미디어실 A/V실
4. 상영영화: 인사동 스캔들 등 20편

Table with columns: 테마, 날짜, 영화/감독, 국가, 런닝타임. Lists movies like '인사동 스캔들', '가을출시 영화DVD', '멀티미디어실 대영영화 베스트 5', '사랑스런 아버지', '따뜻한 형제'.

- 5. 관람방법: 직접방문, 안내자료 수령 후 관람(무료)
6. 문 의: 중앙도서관 멀티미디어실(02-2260-3452)
※ 1. 영화 소개 자료 및 음료수 제공
2. 상영영화는 멀티미디어실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중앙도서관

원고모집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에서는 연구소 학술지 『철학·사상·문화』 제9호에 실릴 논문을 모집합니다. 논문 원고는 철학, 사상, 문화에 속한 영역으로 제한하며, 제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원고 제출일시: 2009년 12월 15일(화) 까지
2) 원고 제출방법: 전자우편 ischoi@dongguk.edu
3) 원고 명기사항: 투고자의 성명(한글/영문), 소속, 주소, 전화번호
4) 원고 제출 관련사항: 동서사상연구소 홈페이지(http://ins-ewt.dongguk.edu/)의 철학/사상/문화 란의 논문투고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채택된 논문은 2010년 1월 31일 발간 예정인 『철학·사상·문화』 제9호에 수록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동서사상연구소(교내 8838)/ 연구소 조교 박영식(019-629-16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서사상연구소

금주의 식단

- 월(11/23) 삼산적구이(2200)/치킨가스(2500)/참치김치덮밥(2200)/쇠고기국밥(2500)
화(11/24) 햄구이(2000)/치즈돈가스(3000)/만두짜장밥(2200)/떡볶이불고기(3000)
수(11/25) 두부김치(2200)/함박스테이크(2500)/몽나롤비빔밥(2200)/된장찌개(2500)
목(11/26) 계란말이(2000)/돈가스(2500)/매운소삼육밥(2200)/우거지갈비탕(3000)
금(11/27) 돈가스(2000)/모듬가스(3000)/치킨테리야끼볶음밥(2200)/이면수구이(3000)

- 월(11/23) 갈비경단(2200)/치즈돈가스(3000)/치킨굴소스덮밥(2200)/김치치즈소분(2500)
화(11/24) 간풍육(2200)/상록원정식(3000)/고추잡채덮밥(2200)/닭곰탕(2500)
수(11/25) 제육깻잎볶음(2200)/치킨가스(2500)/산채비빔밥(2200)/순두부찌개(2500)
목(11/26) 두부조림(2200)/새우가스(3000)/오징어두루치기(2200)/만두전골(2500)
금(11/27) 우영닭조림(2200)/돈가스(2500)/오므라이스(2200)/어묵백반(2500)

- 월(11/23) 낙지돈육고추장덮밥(2200)/고추잡채(2200)
화(11/24) 치킨카레라이스(2200)/제육덮밥(2200)
수(11/25) 김치치즈덮밥(2200)/불고기덮밥(2200)
목(11/26) 치킨테리야끼덮밥(2200)/육개장(2000)
금(11/27) 족발(2500)

- 월(11/23) 치킨굴소스덮밥(2200)/해물치즈소분(3000)/불고기말무비빔밥(2200)
화(11/24) 꾸꾸미제육덮밥(2200)/돈갈비김치찌개(2500)/치즈카레볶음밥(2200)
수(11/25) 양송이덮밥(2200)/치즈돈가스(3000)/참치김치덮밥(2200)
목(11/26) 닭고기비빔밥(2200)/사골우거지탕(2500)/쇠고기당면덮밥(2200)
금(11/27) 날치알새싹비빔밥(2200)/짜장면.물만두(2500)/참치콘볶음밥(2000)

매미, 14일의 환희를 위한 7년간 기다림

촬영이
지



2009년 7월 26일

매미는 알에서 부화(孵化)해 땅 속으로 기어 들어가 나무 수액을 빨아먹으며 최대 10년 정도 지낸다. 매미의 일생에서 첫 단계인 땅에서 나오는 장면을 찍기 위해 학림관으로 향했다. 온 좋게 비비적대며 땅 속에서 나오는 매미 유충을 발견했다.

매미는 우화(羽化)를 하는 동안 자리를 옮기거나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천적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 카메라를 고정시키고 우화 장면을 찍으며 빈둥대다가 갑작스럽게 이 장면을 목격하고 급하게 스트로보를 꺼내 찍었다.



2009년 7월 28일

더위에 지쳐 카메라를 집에 놔두고 라버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매미 생각뿐이었다. 이날도 어김없이 학림관 부근을 배회(徘徊)하고 있는데 아뵤스! 짝짓기 하고 있는 매미 발견! 하늘이 도와준 걸까. 마침 친구가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고, 온이 좋게 매미 짝짓기 모습을 담아냈다.



2009년 8월 15일

매미는 대부분 날다가 이리저리 부딪히고 힘이 빠져 땅에 떨어져 죽는다. 나는 땅에 떨어져 죽은 매미를 찍기 위해 학림관 올라가는 길바닥에 바짝 엎드렸는데, 치마를 입은 여학생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힐끔 쬐어봤다.

출품작의 마지막 사진으로 렌즈와 태양이 일직선 상에 있을 때 무지개 빛 프레임이 생긴다는 것을 참고해 매미의 실루엣과 같이 담기로 했다. "매미야, 내년 여름에도 7년이라는 긴 기다림을 마치고 기쁨의 노래를 부를 너희들의 모습을 기대할게"



2009년 8월 28일



2009년 8월 21일

글·사진 = 김정훈(경제4)

【편집자주】

중앙일보 제 6회 대학생 기획탐사 사진 공모전 최우수상에 선정된 김정훈(경제4) 군의 출품작 '매미 울음소리 들릴 무렵'은 심사의원들로부터 자연 교과서의 사진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만큼 매미의 인생을 생생하게 담아냈다는 평을 받았다. 그가 기록한 약 한달 간의 사진 촬영(撮影)일지와 인터뷰를 통해 그가 표현하고 싶었던 매미의 인생을 살펴보자.

중앙일보 제6회 대학생 기획탐사보도 사진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자 김정훈 군(경제4) 인터뷰

“피사체 향한 무한애정이 일궈낸 수상”

미국 현대 사진(寫眞)의 거장 마이너 화이트는 ‘진정한 사진가는 자신이 찍으려는 대상의 모든 것에 자기를 빠뜨려야 한다. 피사체와 일체가 되어 그것을 좀 더 깊이 느낄 때 비로소 좋은 사진이 탄생한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중앙일보 제 6회 대학생 기획 탐사보도 사진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受賞)한 김정훈(경제4) 군은 현대 사진 거장이 말하는 ‘진정한 사진작가’의 표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그의 출품작에는 그와 피사체(被寫體)가 일체된 모습이 담겨 있다.

그의 사진 모델은 사람이 아닌 바로 곤충 매미다. 김정훈 군은 매미를 잘 찍기 위해선 매미의 습성에 대해 잘 알아야한다고 생각했기에 가장 먼저 매미에 관한 책들을 섭렵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 여름 매미가 매달린 나무만을 쳐다보고 다녔을 정도로 오직 매미만을 생각했다”며 이러한 열정(熱情)이 수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다고 겸손하게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군복무 시절, 전출을 가는 중장병으로부터 필름 카메라를 선물 받은 후, 사진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는 제대 후 2007년부터 중앙일보 대학생 사진 기자로 활동하며 사진에 대한 열정을 키워나갔다. 그러나 사진에 관한 무한한 열정을 쏟았던 그에게 이번 여름방학의 대부분을 매미 촬영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다고 한다. 졸업을 앞둔 4학년으로, 주변 사람들로 부터 남들 취업 준비할 때 매미만 쫓아다니는 핀잔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 있어 지난 매미 촬영에 몰두했던 지난 여름방학은 사진기자를 꿈꾸는 나를 한 단계 성장시켜준 기간이었기에 소중한 기간으로 기억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정훈 군은 지난 여름 하루에 5시간 이상을 매미 사진 촬영에 할애 했고 총 20KB 분량의 수많은 사진을 찍을 정도로 끊임없이 사진 촬영에 몰두(沒頭)했다. 그 결과 그는 많은 사진작가들에게 포착되지 못한 매미의 짝짓기 모습 사진까지 담아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피사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피사체를 더 아름답고 진솔하게 담아내는 사진 기자가 되고 싶다”며 ‘사진기자’라는 새로운 도전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앵글에 포착되는 피사체는 찍는 이의 애정(愛情)을 듬뿍 받고 있다”는 말이 있다. 그 누구보다 피사체에게 애정을 선사할 김정훈 군. 뷰파인더로 세상의 모든 피사체를 포착하고 네모난 한 컷 안에 그것들을 아름답게 담아 낼 ‘김정훈 사진기자’로서의 면모를 기대해본다.

이신혜 기자 leeshin@dgu.edu

2009 동국 시나리오 공모전

접수기간 2010.01.13(수) - 01.15(금)
 수상작발표 2010.02.02(화) (본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공모부문 공연예술: 희곡 / 뮤지컬 대본
 영상시나리오: TV드라마 / 영화시나리오 / 게임시나리오 / 애니메이션시나리오

참가자격 재학생 / 수료생
 2009학년도 2학기 현재 본교(서울캠퍼스)학부 / 대학원(석사)

접수처 영상미디어대학 / 영상대학원 학사운영실 (해화빌딩 1층)
 Tel: 02-2260-3763

후추: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협찬: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dongguk UNIVERSITY

동국고

동국가족 여러분께!
 만추의 풍요로움으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보람찬 일들로 풍성한 일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겨울 준비와 화기말을 준비하면서 바쁜 일상으로 분주하신 줄 믿습니다.
 건강식품인 '동국고'로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연말을 맞으시기를 소원합니다.

*1kg/500g/300g 3종류가 있습니다.

인삼·복령·천마·지황·꿀로 만든 천연 특상품의
 건강식품

동국식품 부설 약용군자원연구소 (생명과학과 명예교수 이 민 용)
 문의 전화: 02)2265-9156-7 031)774-9515
 011-204-9154 011-470-2211
 홈페이지: http://www.dongokgo.com

동국고는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동국고는 천연물 재료인 인삼, 복령, 천마, 지황, 꿀 등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식품으로, 병 후 회복기에 있는 병약자나 노인들의 건강 증진, 지구력을 요하는 수험생 또는 정신집중이 필요한 직장인들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며, 여성들에게는 피부를 윤택하게 해주며 변비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성장기 어린이, 수험생, 노약자, 직장인, 허약자

한의원 동의보감에 기록·전수 되어오는 경옥고를 기초로 하고, 특히 천마를 첨가하여 현대적으로 개량된 방식으로 생산한 건강증진용 식품입니다.
 주재료는 인삼, 복령, 천마, 지황, 꿀 등을 재료로 하였으므로, 우리의 생체 활력을 촉진하고, 성장기 어린이의 학습능력향상과, 노약자의 질병예방과 관련한 저항력을 증진시키고, 피부의 윤택함을 더해주고, 변비해소 및 건강증진으로 각종의 질병 예방에 좋습니다.

인삼의 윤택한 향과 꿀의 달콤함이 어우러져 한입 한입 먹을 때마다 기쁨이 좋아지는...